E 01-2020-01

2020 봄

농업·농촌경제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코로나 19 확산과 국제 곡물 시장 영향

코로나 19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행태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

2020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 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와 농업종사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관측&동향/농정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김재휘 raccoon_kjh@krei.re.kr, 김충현 goldbl@krei.re.kr, 옥소연 syock1101@krei.re.kr
서홍석 hongseokseo@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126 팩스: 061-820-2409

목 차

Ⅰ.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1
2. 고용 ····· 3
3. 소비 ····· 4
4. 물가 ····· 6
5. 금융·환율 ····· 11
6. 세계경제 ····· 14

Ⅱ.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15
2. 농촌 물가 ····· 16
3. 농림어업 취업자 ····· 20
4. 농축산물 수출입 ····· 21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 29
2. 엽근채소 ····· 34
3. 양념채소 ····· 40
4. 과일 ····· 47
5. 과채 ····· 52
6. 축산 ····· 60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

1. 조사 개요 ····· 67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 68

특별주제

코로나 19 확산과 국제 곡물 시장 영향 ····· 85
코로나 19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행태 변화 ····· 99

요 약

Ⅰ. 일반경제 동향

- 2020년 1/4분기 경제성장률(실질 GDP)은 전기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정부 소비, 건설 및 설비 투자 증가 폭이 둔화된 가운데 민간소비와 수출의 감소세 전환이 영향을 미침.
- 2020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2,67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126만 명으로 나타남.
- 2019년 4/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9% 증가함. 2020년 2월 소매 판매는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액 감소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국산 승용차 판매 증가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2020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함. 품목 성질별로 상품,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 서비스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각각 1.9%, 2.0%, 1.5%, 0.6% 상승하였으며, 농축수산물은 2.0% 상승함.
- 2020년 1/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7.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6.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하락함.
- 2020년 2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1.8%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 유동성(Lf)은 전월 대비 각각 0.9% 증가함. 2020년 3월 시장금리(국고채 3년)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미 달러화 확보 움직임, 향후 국채 공급 증가 전망 등으로 1.1% 상승함.
- 2020년 1/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원/위안 환율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함.
- 2019년 4/4분기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경우 2.1%, 중국 6.0%, 일본 -1.8%, 유로 0.1%를 기록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20년 1/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전기 대비 0.1% 성장함.
- 2020년 1/4분기 농가 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6%, 전기 대비 5.1% 상승함.
  - 부류별로 곡물, 청과물, 축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특용작물, 화훼류는 하락함.
- 2020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7%, 전기 대비 1.1%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 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상승함. 노무비, 경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 4.1% 상승하였으나 자산구입비는 2.6% 하락함.
- 2020년 1/4분기 농가 교역조건지수는 107.1로 전년 동기 대비 1.1% 악화됨.
  - 농가 교역조건의 악화는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1.6% 상승하였으나, 농가구입가격지수가 더 큰 폭(2.7%)으로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임.
- 2020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 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함.
- 2020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7억 4,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6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함.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한 순수입액은 약 67억 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함.

Ⅲ. 특별주제

1. 코로나 19 확산과 국제 곡물 시장 영향

• 2019년 12월 코로나 19가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아시아를 거쳐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은 거시 경제지표 및 해운 시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역폐쇄조치나 대면 거래 금지 등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됨. 달러화 가치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세계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유로화, 엔화 등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임. 한편, 국제유가는 공급과잉 현상 및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서부텍사스유(WTI)의 경우 마이너스(-) 가격을 보이기도 함.

- 유가 하락에 따른 해상운임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운송 차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상물류 여건이 위축됨. 코로나 19로 인해 항만 물동량 감소가 전망되고 있으며, 컨테이너선은 계류 및 적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운송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곡물 운송에 이용되는 건화물선의 수요는 지속되고 있어 컨테이너선에 비해 양호한 시황을 보임.

• 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제 곡물 수급은 양호한 공급 여건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물가격 역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의 작황 호조 지속으로 국제 곡물 기말재고율은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코로나 19가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됨. 선물가격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밀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밀 관련 제품 수요의 일시적 급증 현상으로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됨. 옥수수와 콩은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둔화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에서 정부 차원의 전략 곡물 재고비축분 확대와 곡물 및 식품 수출 제한을 추진하고 있음.

-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등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쌀 수출 제한 조

치를 발표하였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EU 및 흑해 인접 국가에서는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 쿼터 및 수출 제한을 시행하고 있음.

- 4월 기준, 국내 식용 및 사료용 곡물은 3/4분기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임.
  - 품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식용 곡물의 경우 8~9월 도착분까지 구매계약을 완료하였고, 창고와 항만 보유량, 해상운송 중일 물량을 포함하여 1~3개월 사용분을 보유하고 있음. 사료용 곡물 역시 9월 도착분까지 구매계약을 완료하였고, 국내 사용량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물량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 불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주요 곡물 수출국에서의 수출 제한 조치 확산과 항구봉쇄조치 단행 시에는 유의미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임.
  - 미국, 남미 등 우리나라가 주로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에서의 항구봉쇄조치는 없는 상황이며, 주요 곡물 수출국에서는 생산 및 수출입 업무 종사자를 예외 인력으로 규정하여 곡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컨테이너선 대비 운송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화물선을 이용한 곡물 수입량이 많아 단기적 국내 곡물 도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단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장기적으로 미국 등에서 항구봉쇄 조치 등이 이루어지면 곡물 도입에 문제가 발생함. 항구봉쇄로 인한 선적지연 및 계약 취소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국내 사용 가능 물량이 소진되기 때문임. 수입선 대체도 쉽지 않은데, 계약 절차상 봉쇄조치를 염두에 두고 기계약을 파기하거나 다른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우며, 봉쇄조치 직후 다른 국가를 통한 구매계약 및 선적이 즉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해상운송에만 40일 전후의 시일이 소요됨.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장기적인 대응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코로나 19과 같은 상황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비축설비 확충, 국가 필수 선박 제도 활용 등을 통한 곡물 수급 위기 대응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2. 코로나 19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행태 변화

- 농업관측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의 발생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행태 변화 조사를 총 4회 실시했으며, 1~2차 조사는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소비행태 변화를 조사하고, 3~4차 조사는 이전 차수 조사시기와 비교하여 소비행태 변화를 조사함.

- 코로나의 확산 영향으로 매장방문과, 외식의 빈도는 감소했으나 최근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고, 가정조리의 비율은 증가했으나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됨.
  -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 시 매장방문과 외식의 빈도는 감소하고('줄었음' 응답자 증가, 음식점 방문: 81.8→90.7%, 매장방문: 66.9→69.7%) 가정조리의 비율은 증가함('늘었음' 응답자 증가, 가정조리: 70.5→81.8%).
  - 4월 이후 이전 차수 조사시기와 비교 시 음식점·매장 방문 빈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며('늘었음' 비율 증가, '줄었음' 비율 감소), 가정조리의 상승세가 더뎌지고 있음('늘었음' 응답 감소).

- 코로나 19 확산 시기에 축산물 외식 빈도는 대체로 감소 추세지만 점차 정체기로 전환되고 있음.

- 오프라인 매장방문 빈도는 확산 초기에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코로나 19 대규모 확산 초기에는 '줄었음' 응답자가 많았으나 확진자 감소세 전환 초기에는 '줄었음'이 전보다 감소함.
  - 4월 이후 오프라인 매장방문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됨.

- 온라인 매장방문 빈도는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4월 돌입 후 추세가 조금 완화됨.
  -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모든 품목의 온라인 매장방문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대규모 확산 시기 대비 확진자 감소세 전환 시기에 약 12.1%p 증가).
  - 4월 이후 온라인 매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빈도의 증가 추세가 조금 완화됨.

Ⅰ. 일반경제 동향[1)]

1. 경제성장[2)]

- 2020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4% 감소하였으나 원계열은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소비와 건설 및 설비 투자의 증가 폭이 둔화된 가운데 민간소비와 수출의 감소세 전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2020년 1/4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0.6% 감소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18[p]					2019[p]					2020[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G D P 성장률	2.7	1.0	0.6	0.5	0.9	2.0	-0.4	1.0	0.4	1.3	-1.4(1.3)
민간소비	2.8	0.7	0.5	0.4	0.8	1.9	0.1	0.7	0.2	0.9	-6.4(-4.7)
정부소비	5.6	1.9	0.6	1.6	2.8	6.5	0.4	2.2	1.4	2.5	0.9(7.1)
건설투자	-4.3	0.9	-2.5	-6.0	1.8	-3.3	-0.8	1.4	-6.0	7.0	1.3(3.4)
설비투자	-2.4	4.3	-8.4	-4.0	3.2	-8.1	-9.1	3.2	0.6	3.3	0.2(7.6)
총 수 출	3.5	3.5	0.7	4.0	-1.4	1.5	-3.2	2.0	4.6	0.5	-2.0(4.9)
총 수 입	0.8	4.3	-2.3	-1.1	1.6	-0.6	-3.4	2.9	1.2	0.6	-4.1(0.5)

주 1. 2018[p], 2019[p], 2020[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충현 연구원(goldbl@krei.re.kr), 서홍석 부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20.04.2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0.04.16.)」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정부 소비, 건설 및 설비 투자의 성장은 둔화된 가운데 민간소비와 수출이 감소로 전환됨.
  - 2020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음식, 숙박, 오락문화 등 서비스 부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기 대비 6.4% 감소하였으며 정부 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9% 증가함.
  - 2020년 1/4분기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1.3%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어 0.2% 증가함.
  - 수출은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 줄어 전기 대비 2.0%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광산품과 자동차 등이 줄어 4.1% 감소함.
- 경제 활동별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모두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농림어업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1% 증가함.
  - 제조업은 반도체는 증가하였으나 운송장비, 1차 금속제품 등이 감소하여 전기 대비 1.8% 감소함.
  -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2.0% 감소함.

경제 활동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8p					2019p					2020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농림어업	1.5	3.2	-2.6	-3.5	2.8	2.6	4.7	-3.6	0.6	1.4	0.1(-1.2)
제조업	3.4	0.8	1.6	1.6	1.6	1.4	-3.3	1.1	2.4	1.6	-1.8(3.2)
서비스업	3.2	1.3	0.4	0.5	0.5	2.6	0.8	0.8	0.6	0.8	-2.0(0.2)
(도소매 및 음식·숙박)	2.3	-0.7	0.7	1.4	1.2	1.1	-2.3	0.8	1.4	1.5	6.5(-3.2)
(부동산)	2.1	3.1	-1.2	-0.1	-0.3	2.2	3.1	-0.4	0.0	0.2	1.8(1.5)
(정보통신)	4.1	3.1	-1.6	-1.0	-0.1	3.6	6.9	-1.5	-2.9	1.9	5.9(3.1)
(사업서비스)	1.7	1.1	0.1	-0.7	0.7	2.0	0.4	1.5	-0.1	1.0	-2.1(0.2)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8.1	0.7	1.8	4.5	3.1	8.2	-0.9	2.1	3.8	1.9	-5.2(2.4)

주 1. 2018p, 2019p, 2020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2. 고용[3)]

- 2020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79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함.
- 2020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2,67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전기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에서 증가세를 보임.
  -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45만 9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가 42만 명, 일용근로자가 17만 3천 명 각각 감소하였음.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4천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8천 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 5천 명 감소하였음.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18	2019					2020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경제활동인구	27,895	28,186	27,702	28,432	28,328	28,283	27,911	0.8
(경제활동참가율)	63.1	63.3	62.4	63.9	63.6	63.4	62.5	0.1
취 업 자	26,822	27,123	26,461	27,256	27,382	27,393	26,749	1.1
• 농 림 어 업	1,340	1,395	1,158	1,475	1,538	1,409	1,255	8.4
• 광 공 업	4,529	4,444	4,447	4,438	4,417	4,473	4,453	0.1
(제 조 업)	4,510	4,429	4,432	4,424	4,403	4,458	4,438	0.1
• 건 설 업	2,034	2,020	1,970	2,030	2,034	2,044	1,962	-0.4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965	5,966	5,943	5,996	5,982	5,943	5,817	-2.1
실 업 자	1,073	1,063	1,241	1,176	946	891	1,162	-6.4
실업률(계절 조정)	3.9	3.8	3.9	4.0	3.5	3.6	3.7	-0.2

자료: 통계청

3) 고용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20년 3월 고용동향(2020.04.17.)」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0.04.16.)」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3. 소비[4)]

- 2019년 4/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9% 증가함.

- 2019년 2월 소매 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7.5%), 의복 등 준내구재(△17.7%),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가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6.0% 감소함.

- 2020년 3월 소매 판매의 경우, 국산 승용차 판매 증가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백화점·할인점 매출액,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감소,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소비 동향

단위: %

구분	2018	2019p					2020p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p	2월p
민 간 소 비	2.8	1.9	0.1	0.7	0.2	0.9	-	-
소 매 판 매	-	2.4	0.9	0.5	0.3	1.9	-3.1	-6.0
(내 구 재)1	5.7	1.8	0.8	0.1	0.4	5.1	-8.5	-7.5
(준내구재)2	5.8	0.6	-1.0	1.0	-1.5	-1.2	-2.1	-17.7
(비내구재)3	2.9	3.4	1.7	0.6	1.0	1.6	-0.6	-0.6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9년, 2020년 소비 동향은 잠정치임.
5. 표 안의 숫자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 2019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전기 대비 2.2% 감소함.
  -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 11.0%, 3.7% 증가하였으나 사업소득은 2.2% 감소하였음.
  - 비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6.8% 감소하였음.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0.04.16.)」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전 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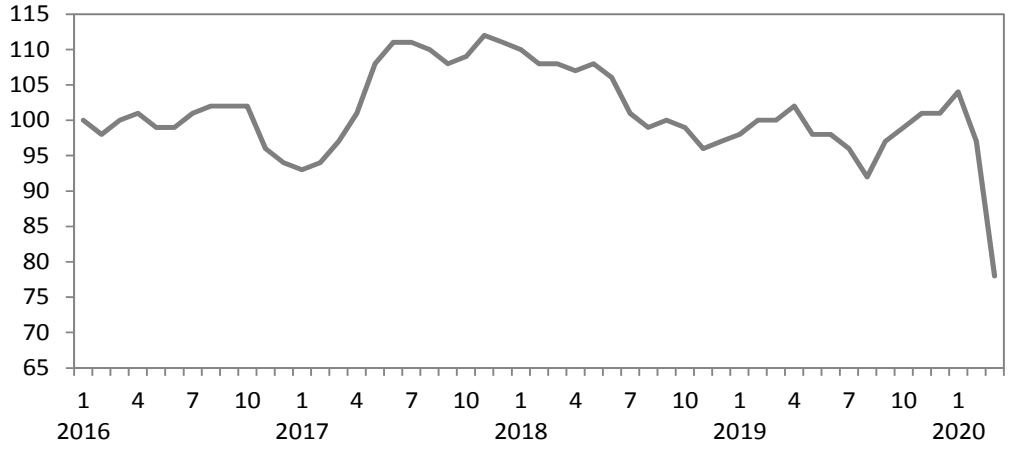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8				2019			
	1/4	2/4	3/4	4/4	1/4	2/4	3/4	4/4
소 득	3.7	4.2	4.6	3.6	1.3	3.8	2.7	3.6
경상소득	7.5	6.3	5.7	4.8	1.7	4.2	3.3	4.0
(근로소득)	6.1	5.3	4.5	6.2	0.5	4.5	4.8	5.8
(사업소득)	5.7	3.8	1.1	-3.4	-1.4	-1.8	-4.9	-2.2
(재산소득)	3.4	34.4	9.3	4.9	-26.0	7.0	-2.5	11.0
(이전소득)	19.2	16.6	22.8	11.9	14.2	13.2	8.6	3.7
비경상소득	-79.2	-68.6	-49.6	-55.3	-43.5	-44.6	-63.4	-46.8

자료: 통계청

- 2020년 4월 소비자심리지수[5]는 71로 1월(104) 대비 큰 폭(△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월 104.0 → 2월 97.0 → 3월 78.0 → 4월 71.0

소비자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4. 물가[6)]

- 2020년 1/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2015=100)는 105.7로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함.
  - 품목 성질별로 살펴보면, 상품, 서비스는 각각 1.9%, 0.6% 상승함.
  -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는 각각 2.0%, 2.0%, 1.5% 상승함.

부문별 소비자 물가지수(2015=100)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총 지 수	104.5	104.9	104.5	104.9	104.9	105.2	105.7
	(1.5)	(0.4)	(0.5)	(0.7)	(0.0)	(0.3)	(1.2)
상 품	102.7	102.4	101.7	102.5	102.1	103.0	103.7
	(1.3)	(-0.3)	(-0.4)	(0.3)	(-1.0)	(-0.2)	(1.9)
농축수산물	113.6	111.7	112.5	111.3	110.7	112.2	114.7
	(3.7)	(-1.7)	(0.2)	(1.2)	(-5.4)	(-2.5)	(2.0)
공업 제품	102.2	102.1	101.0	102.3	102.3	102.7	103.0
	(1.3)	(-0.2)	(-0.7)	(0)	(-0.2)	(0.2)	(2.0)
전기·수도·가스	86.9	88.2	88.6	88.6	85.6	90.0	90.0
	(-2.9)	(1.5)	(1.3)	(1.3)	(1.9)	(1.5)	(1.5)
서 비 스	105.9	106.9	106.7	106.9	107.1	106.9	107.4
	(1.6)	(0.9)	(1.3)	(0.9)	(0.9)	(0.7)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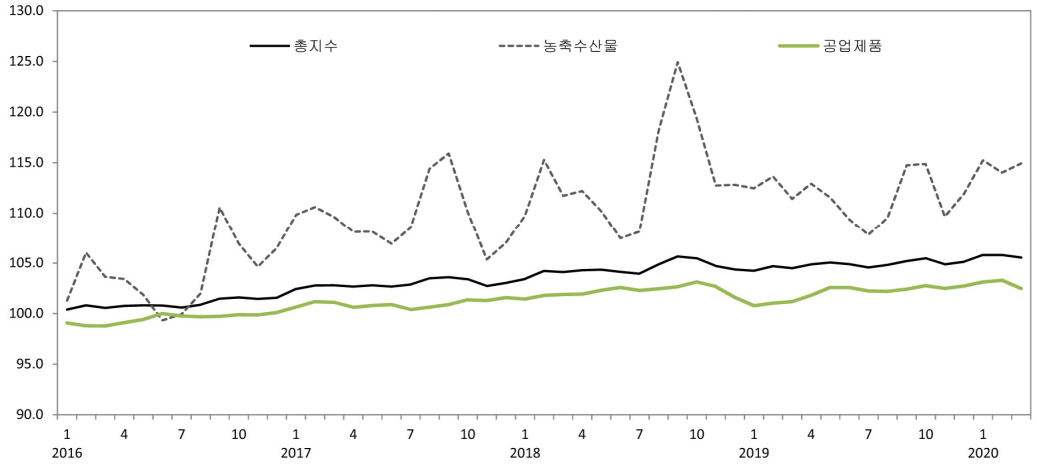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20년 3월 상품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 서비스는 0.5% 상승함.
  - 농축수산물은 3.2%, 공업제품 1.3%, 전기·수도·가스 1.6% 상승함.
  - 집세와 공공서비스는 각각 0.6% 하락했으나 개인 서비스는 1.1% 상승함.

6) 물가 부문은 통계청「2020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2020.04.02.)」, 한국은행「2020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2020.04.22.)」,「2020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2020.04.14.)」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20년 3월 기준 지출목적별로는 전월 대비 식료품·비주류 음료, 보건은 상승하고, 의류·신발, 주택·수도·전기·연료, 통신, 교육은 변동 없는 반면, 기타 상품·서비스, 주류·담배, 오락·문화, 음식·숙박,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교통은 하락함.

월별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추이(2015=100)



자료: 통계청

- 2020년 1/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05.7로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하였으며, 전기 대비 0.5% 상승함.
  - 농산물 품목별로 살펴보면, 곡물, 채소, 기타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 3.4%, 10.1% 하락하였으나 과실은 14.0% 상승함.
  - 축산물은 118.0으로 9.2%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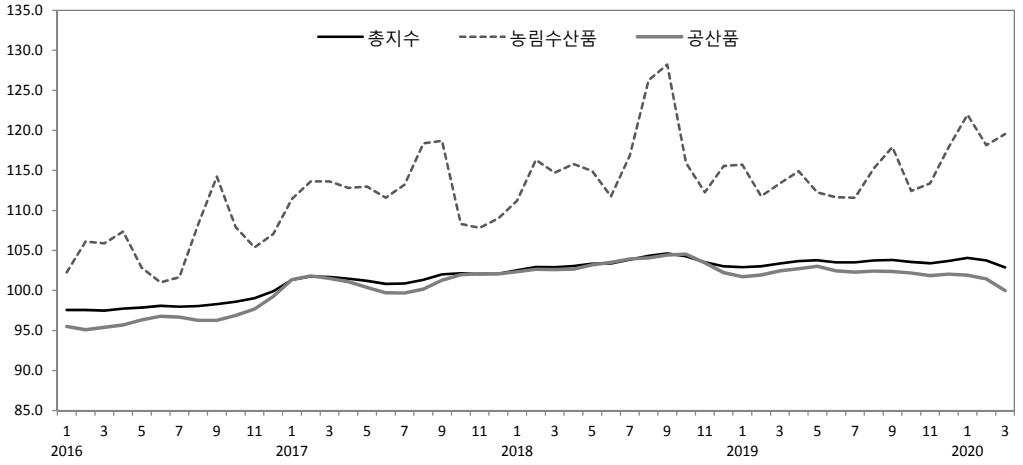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2015=100)

구분	2019					2020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4.9	104.5	104.9	104.9	105.2	105.7	1.2	0.5
농산물	111.7	112.5	111.3	110.7	112.2	114.7	2.0	2.3
곡물	113.7	117.6	113.0	111.4	113.0	117.0	-0.5	3.5
채소	118.5	119.6	119.0	118.0	117.5	115.5	-3.4	-1.7
과실	111.4	110.3	101.9	112.5	120.9	125.7	14.0	3.9
기타 농산물	110.7	120.7	117.3	103.9	101.1	108.6	-10.1	7.4
축산물	124.8	130.0	127.2	123.4	118.8	118.0	-9.2	-0.7
수산물	107.3	103.9	107.6	108.6	109.0	108.3	4.2	-0.7

자료: 통계청

- 2020년 1/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3.6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상승함.
  - 2020년 3월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농산물 및 수산물 등이 올라 전월 대비 1.2% 상승함.
  -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1.4% 하락함.
  -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전월 대비 보합인 반면,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이 하락하여 전월 대비 0.3% 하락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100)



자료: 통계청

- 2020년 1/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7.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전기 대비 0.7% 하락함.

- 2020년 3월 수출물가지수는 96.6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1% 하락함.
  - 계약 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3.1% 하락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9.9% 하락함.

- 2020년 1/4분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6.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하락하였으며, 전기 대비 3.1% 상승함. 3월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8.9로 전년 동월 대비 0.7%, 전월 대비 2.0% 상승함.

- 2020년 1/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96.9로 전년 동기 대비 2.6%, 전기 대비 0.7% 하락하였으며, 3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96.5로 전년 동기 대비 3.3%, 전월 대비 1.1% 하락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5=100)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총 지 수	103.4	99.9	99.6	101.5	101.1	97.7	97.0	97.6	96.6
	(0.8)	(-3.4)	(-1.8)	(-0.9)	(-4.8)	(-5.8)	(-2.6)	(-2.0)	(-3.3)
농림수산품	114.8	116.8	118.6	117.6	118.1	113.0	116.6	116.5	118.9
	(-4.0)	(1.8)	(4.9)	(4.7)	(2.0)	(-4.0)	(-1.7)	(-0.6)	(0.7)
농 산 물	100.1	115.9	117.1	116.7	118.5	111.4	115.4	115.5	118.1
	(1.8)	(15.8)	(30.6)	(25.2)	(12.8)	(-1.0)	(-1.5)	(-0.6)	(4.4)
공 산 품	103.4	99.9	99.5	101.4	101.0	97.6	96.9	97.6	96.5
	(0.8)	(-3.4)	(-1.8)	(-1.0)	(-4.8)	(-5.8)	(-2.6)	(-2.0)	(-3.3)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20년 1/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05.1로 전년 동기 대비 2.1%, 전기 대비 2.7% 하락함.

- 2020년 3월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 전월 대비 5.2% 하락한 100.8로 나타남.
  - 계약 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7.7%, 전월 대비 5.2% 하락함.
  - 2020년 3월 기준 원재료의 경우 광산품 등이 내려가 전월 대비 17.7% 하락하였으며,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 상승에도 불구하고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1.9% 하락함. 반면, 자본재 및 소비재가 전월 대비 각각 2.8%, 1.5% 상승함.

- 2020년 3월 농림수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05.4로 전년 동월 대비, 6.9%, 전월 대비 1.6% 상승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5=100)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총 지 수	108.4	109.3	107.3	111.4	110.7	108.0	105.1	106.4	100.8
	(6.3)	(0.8)	(3.3)	(3.1)	(-1.1)	(-1.7)	(-2.1)	(-1.0)	(-7.7)
농림수산품	98.3	102.1	97.4	102.6	103.8	104.5	104.2	103.8	105.4
	(-1.6)	(3.9)	(0.8)	(3.8)	(4.8)	(5.9)	(7.0)	(7.5)	(6.9)
농 산 물	97.5	98.6	95.4	100.0	100.3	98.8	99.5	99.4	100.1
	(-0.1)	(1.1)	(0.1)	(1.3)	(2.1)	(1.0)	(4.3)	(4.7)	(5.0)
공 산 품	103.4	104.4	102.3	105.7	105.8	103.7	103.9	104.3	103.9
	(2.4)	(1.0)	(1.6)	(3.0)	(0.0)	(-0.6)	(1.5)	(2.3)	(0.0)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7)]

- 2020년 2월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12.0%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1.8% 증가)함.

- 2020년 2월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9%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MMF,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2020년 2월 금융기관 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9% 증가)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 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9												20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M1[1]	2.1	1.9	2.6	3.0	3.2	3.3	3.8	4.7	5.0	5.3	7.0	9.6	11.5	12.0
M2[2]	6.5	6.2	6.8	6.6	6.6	6.7	6.6	6.8	7.6	7.5	7.7	7.9	7.8	8.2
Lf[3]	7.4	7.1	7.6	7.7	7.9	8.0	8.0	8.2	8.4	8.3	8.4	8.2	8.2	8.5
본원통화[4]	8.7	8.4	8.8	8.8	9.9	9.2	7.7	9.4	7.5	7.3	8.6	7.8	12.3	8.0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 발행액(기념 화폐 제외) + 지급 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20년 3월 국고채(3년) 금리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미 달러화 확보 움직임, 향후 국채 공급 증가 전망 등으로 전월 대비 1.1% 상승함.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20년 2월 중 통화 및 유동성(2020.04.10.)」과 「2020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2020.04.08.)」, 「2020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20.04.10.)」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코스피는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동반 침체 우려, 국제 유가 급락 등으로 주요국과 함께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3월 이후 국내외 경기부양책 발표 등에 힘입어 하락 폭 축소됨.

금리 동향

단위: 연 %

구분	2019										2020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국고채(3년)	1.8	1.7	1.7	1.5	1.4	1.2	1.3	1.4	1.5	1.4	1.4	1.3	1.1
회사채[1]	2.2	2.2	2.2	2.0	1.9	1.7	1.8	1.9	2.0	1.9	2.0	1.8	1.8
CD유통수익률(91일)	1.9	1.9	1.8	1.8	1.7	1.5	1.5	1.5	1.5	1.5	1.5	1.4	1.2
콜금리[2]	1.8	1.8	1.8	1.8	1.6	1.5	1.5	1.4	1.3	1.3	1.3	1.2	1.0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020년 1/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18원 상승한 1,194원임.
  – 2020년 3월 원/달러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 확산에 따른 미 달러화 수요 급증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한 후 상승 폭이 축소됨.

원화 환율 동향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원/달러	1,100	1,166	1,125	1,166	1,193	1,176	1,194	1,164	1,194	1,220	1,225
원/100엔	996	1,070	1,022	1,060	1,112	1,081	1,096	1,065	1,085	1,135	1,135
원/유로	1,299	1,305	1,278	1,310	1,328	1,302	1,317	1,294	1,302	1,350	1,332
원/위안	166	169	167	171	170	167	171	168	170	174	173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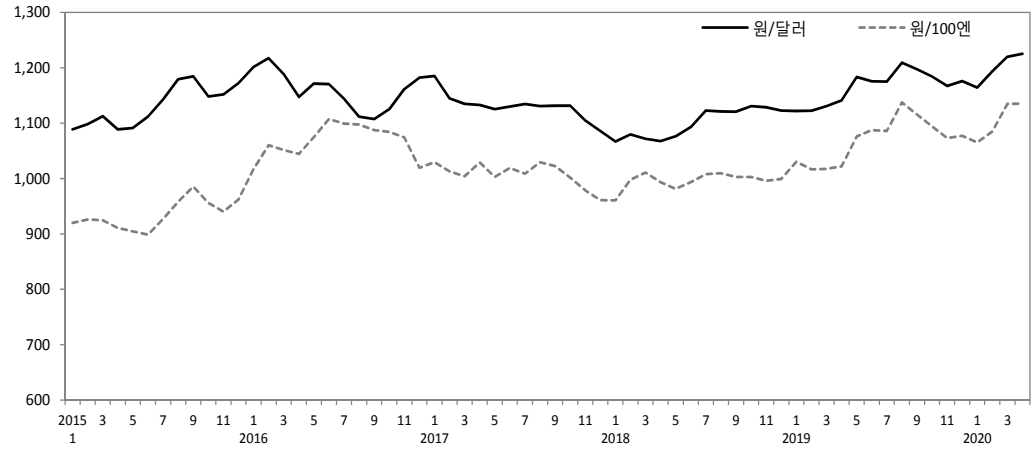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엔화 환율은 1,096원/100엔으로 전기 대비 1.4% 상승하였으며, 위안 환율은 168원/위안으로 전기 대비 2.4% 상승함.
- 2020년 3월 중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전월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원화 환율 동향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원/달러	1,100	1,166	1,125	1,166	1,193	1,176	1,194	1,164	1,194	1,220	1,225
원/100엔	996	1,070	1,022	1,060	1,112	1,081	1,096	1,065	1,085	1,135	1,135
원/유로	1,299	1,305	1,278	1,310	1,328	1,302	1,317	1,294	1,302	1,350	1,332
원/위안	166	169	167	171	170	167	171	168	170	174	173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6. 세계경제[8)]

- 미국 경제는 코로나 19 본격 확산에 따른 고용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및 소매 판매도 크게 부진하였음.
- 중국 경제는 산업생산 및 소매 판매, 고정자산투자 모두 최초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3월 들어서며 경제활동이 다소 정상화되며, PMI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감소 폭은 축소됨.
- 일본 경제는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가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경기판단도 13월 7월부터 유지해온 '회복'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조정됨.
- 유로존 경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제한, 상점 영업 중단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PMI 지표가 크게 위축되었음.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미국	실질 GDP(전기비 연율)	2.9	2.3	3.1	2.0	2.1	2.1	-	-
	산업생산(전기비)	3.9	0.9	-0.5	-0.6	0.3	0.1	-0.5	0.5
	소매 판매(전기비)	4.8	3.5	0.3	1.8	1.4	0.4	0.6	-0.4
	실업률(계절 조정)	3.9	3.7	3.9	3.6	3.6	3.5	3.6	3.5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4	1.8	1.6	1.8	1.8	2.0	2.5	2.3
중국	실질 GDP(전년동기비)	6.7	6.1	6.4	6.2	6.0	6.0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2	5.7	6.5	5.6	5.0	5.9	-13.5	5.3
	소매 판매(전년동기비)	9.0	8.0	8.3	8.5	7.6	7.7	-20.5	8.2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1	2.9	1.8	2.6	2.9	4.3	5.4	5.2
일본	실질 GDP(전기비)	0.3	0.7	0.5	0.6	0.0	-1.8	-	-
	산업생산(전기비)	1.1	-2.8	-2.5	0.7	-0.5	-4.0	1.0	0.4
	소매 판매(전기비)	1.7	0.1	-1.1	0.2	3.3	-6.4	1.5	0.5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0	0.5	0.3	0.8	0.3	0.5	0.7	0.4
유로존	실질 GDP(전기비)	1.9	1.2	0.5	0.1	0.3	0.1	-	-
	산업생산(전기비)	0.7	-1.4	0.2	-0.7	-0.5	-1.1	2.3	-0.1
	소매 판매(전기비)	1.6	2.3	0.7	0.6	0.5	0.4	0.7	0.9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8	1.2	1.4	1.4	1.0	1.0	1.4	1.2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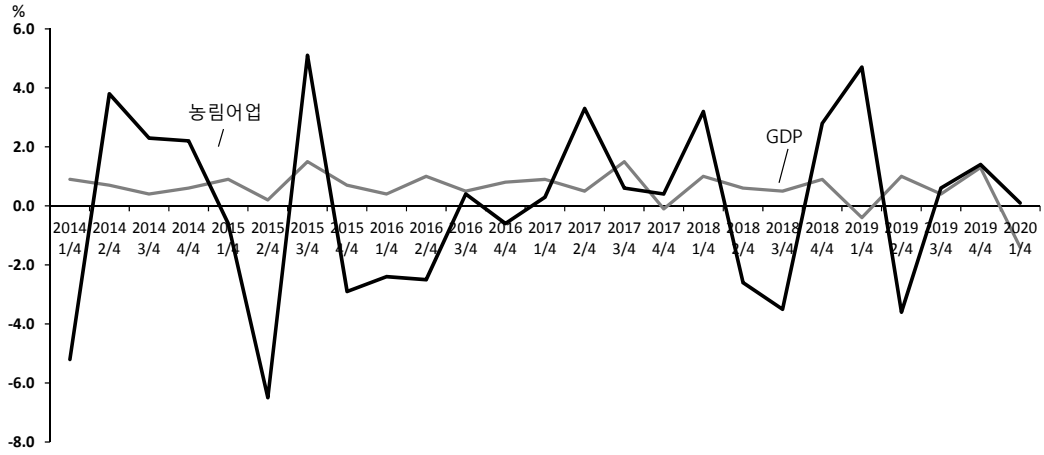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0.04.16.)」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Ⅱ. 농촌경제 동향[1)]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 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20년 1/4분기 8조 3,4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전기 대비 0.1% 증가함.
  - 2020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60조 9,7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전기 대비 1.4% 감소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5년 연쇄 가격 기준)



주: 1)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18년, 2019년, 2020년 1/4분기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충현 연구원(goldbl@krei.re.kr), 서홍석 부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 판매가격지수

- 2020년 1/4분기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113.4로 전년 동기 대비 1.6%, 전기 대비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청과물, 축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특용작물, 화훼류는 하락함.

- 곡물의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131.8로 전년 동기 대비 2.4%, 전기 대비 8.9% 상승함.
  - 서류는 고구마, 감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6%, 33.3% 하락하면서 26.5% 하락함.
  - 두류/잡곡은 옥수수 농가 판매가격지수 상승(전년 동기 대비 0.6%)에도 불구하고 콩, 팥, 검정콩이 각각 2.9%, 41.9%, 42.4%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26.0% 하락함.
  - 미곡은 멥쌀은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한 반면, 찹쌀이 125.8%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3% 상승하였으며, 맥류는 보리쌀(전년 동기 대비 17.6% 상승)을 중심으로 16.3% 상승함.

- 채소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124.7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전기 대비 4.4% 상승함.
  - 엽채류는 배추, 양배추 등 모든 엽채류 가격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9% 상승함.
  - 근채류는 무, 당근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6.3%, 36.0%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86.1% 상승함.
  - 조미 채소류는 풋고추, 양파를 제외한 건고추, 마늘, 풋고추를 제외한 건고추, 마늘, 파, 생강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6%, 44.6%, 34.8%, 6.8%, 38.1%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17.6% 하락함.

- 과채류는 수박을 제외한 오이, 호박, 가지, 참외, 멜론 딸기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여 19.6% 상승함.

• 과수의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119.5로 전년 동기 대비 14.6% 하락하였으며, 전기 대비 21.7% 상승함.

- 매실은 전년 동기 대비 24.5% 상승하였으나 주요 과실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가격은 각각 13.9%, 23.5%, 21.9%, 22.9%, 13.9%, 10.2% 하락함.

농가 판매가격지수(2015=100)

구 분	가중치	2018	2019	2018	2019		2020	등락률(%)	
		연간	연간	4/4	1/4	4/4	1/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8.5	109.1	109.2	111.6	107.9	113.4	1.6	5.1
곡물	280.1	118.2	122.4	121.4	128.7	121.0	131.8	2.4	8.9
-미곡	234.3	112.2	122.8	120.3	121.8	126.5	136.8	12.3	8.1
-맥류	5.5	93.4	96.4	94.5	143.8	73.2	167.3	16.3	128.6
-두류/잡곡	23.9	138.0	147.3	144.1	165.2	133.5	122.2	-26.0	-8.5
-서류	16.4	148.3	93.4	109.2	120.7	79.6	88.7	-26.5	11.4
청과물	406.5	118.2	117.0	116.9	121.9	111.5	122.8	0.7	10.1
-채소	268.9	110.9	101.6	117.6	111.1	119.5	124.7	12.2	4.4
-과수	137.6	130.3	142.5	115.7	139.9	98.2	119.5	-14.6	21.7
축산물	252.6	97.1	97.4	98.7	95.1	99.1	97.9	2.9	-1.2
-가축	185.1	101.6	101.0	102.6	101.2	99.7	99.1	-2.1	-0.6
-기타	67.5	89.4	91.0	91.8	84.4	97.9	95.8	13.5	-2.1
기타 농산물	60.8	101.9	102.3	100.9	107.8	104.5	106.1	-1.6	1.5
-특용작물	42.4	94.3	98.3	94.8	98.1	98.4	96.0	-2.1	-2.4
-화훼	15.3	115.3	108.7	110.3	124.1	114.2	122.9	-1.0	7.6
-부산물	3.0	93.1	103.5	107.0	102.4	107.0	105.5	3.0	-1.4

자료: 통계청

- 축산물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97.9로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하였으며, 전기 대비 1.2% 하락함.
  - 육우 송아지, 자돈, 오리, 젖소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한우 암·수소, 육우, 한우 암·수송아지, 성돈, 육계는 하락함.

- 기타 농산물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106.1로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함.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20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5.9로 전년 동기 대비 2.7%, 전기 대비 1.1%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5=100)

구 분	가중치	2018	2019	2018	2019		2020	전년 대비	
		연간	연간	4/4	1/4	4/4	1/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2.5	104.1	103.4	103.1	104.7	105.9	2.7	1.1
가계 용품	484.8	104.6	104.9	104.9	104.7	105.2	105.9	1.1	0.7
재료비	250.6	92.7	95.6	92.6	93.4	96.4	100.1	7.2	3.8
-종자 종묘	27.5	107.7	112.6	107.6	112.6	112.6	113.1	0.4	0.4
-비료비	39.0	72.6	72.6	72.6	72.6	72.6	77.9	7.3	7.3
-농약비	29.3	95.3	96.8	95.3	96.8	96.8	118.9	22.8	22.8
-사료비	136.0	94.4	98.2	94.4	94.4	99.5	99.5	5.4	0.0
-영농자재비	18.7	95.9	97.7	95.0	95.4	98.5	102.6	7.5	4.2
노무비	45.0	114.8	119.6	117.0	117.5	120.8	120.6	2.6	-0.2
경비	129.0	102.7	106.6	107.7	104.1	109.4	108.4	4.1	-0.9
-영농광열비	32.6	108.4	107.7	116.2	101.7	109.5	105.6	3.8	-3.6
-임차료	40.5	101.3	109.8	108.7	108.7	111.6	111.6	2.7	0.0
-농작업위탁비	42.5	101.7	105.5	103.9	103.9	110.3	110.3	6.2	0.0
-판매자재비	13.3	96.5	97.6	96.5	96.5	99.1	99.1	2.7	0.0
자산구입비	90.6	111.6	112.4	112.1	113.6	111.0	110.7	-2.6	-0.3
-기계구입	58.9	104.2	104.6	104.1	104.5	104.0	104.5	0.0	0.5
-가축구입비	31.7	125.2	126.9	126.9	130.4	123.9	122.3	-6.2	-1.3

자료: 통계청

- 재료비지수는 100.1로 전년 동기 대비 7.2%, 전기 대비 3.8% 상승함.
  - 종자 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7.3%, 22.8%, 5.4%, 7.5% 상승함.
- 노무비 지수는 120.6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하고, 경비는 108.4로 4.1% 상승하였으나 자산구입비는 110.7로 2.6% 하락함.
-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20년 1/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한 103.6임.

2.3. 농가 교역조건지수

- 2020년 1/4분기 농가 교역조건지수는 107.1로 전년 동기 대비 1.1% 악화되었으며, 전기보다는 3.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농가 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하였으나 농가구입가격지수 상승 폭(2.7%)이 더 컸기 때문임.

농업경영조건지수

구 분	2018	2019		2020	등락률(%)	
	4/4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09.2	111.6	107.9	113.4	1.6	5.1
농가구입가격(B)	103.4	103.1	104.7	105.9	2.7	1.1
농업투입재가격(C)	99.2	98.6	101.5	103.6	5.1	2.1
농가교역조건(A/B×100)	105.6	108.2	103.1	107.1	-1.1	3.9
농가경영조건(A/C×100)	110.1	113.2	106.3	109.4	-3.4	2.9

3. 농림어업 취업자

- 2020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25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전 분기 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계절 조정 취업자 수는 154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전 분기 대비 8.9% 증가함.
  - 농림어업 취업자 중 전체 남성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79만 2천 명, 여성 수는 8.9% 증가한 46만 3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159만 6천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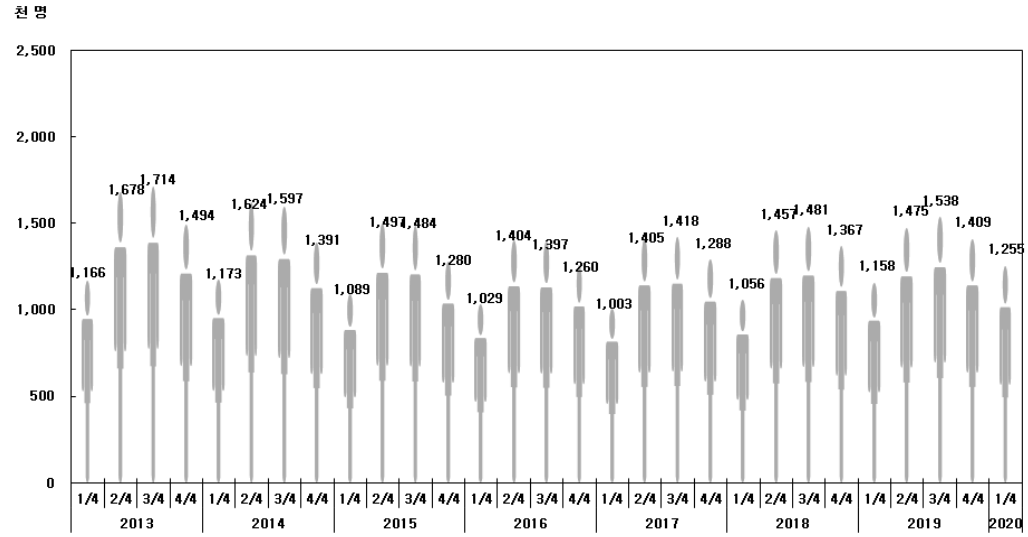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 분		2019		2020	증감률(%)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업자	전산업	26,461	27,393	26,749	1.1	-2.4
	(계절 조정)	(26,995)	(27,313)	(27,289)	(1.1)	(-0.1)
	농림어업	1,158	1,409	1,255	8.4	-10.9
	(계절 조정)	(1,427)	(1,416)	(1,542)	(8.1)	(8.9)
	남성	733	840	792	8.0	-5.7
	여성	425	570	463	8.9	-18.8
	농가	1,501	1,724	1,596	6.3	-7.4
	농가 남성	884	981	944	6.8	-3.8
	농가 여성	617	743	651	5.5	-12.4

주: ( )안은 계절 조정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2019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분기 115만 8천 명, 2/4분기 147만 5천 명, 3/4분기 153만 8천 명, 4/4분기 140만 9천 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 1/4분기는 125만 5천 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20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90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함.
  - 과실류와 채소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17.1% 감소하였으나 곡류가 13.5% 증가하여 전체 농산물은 3.0% 증가함.
  - 축산물은 가금육류 감소(△12.3%)에도 불구하고 포유육류, 낙농품이 각각 138.8%, 22.7%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함.
  -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29.1%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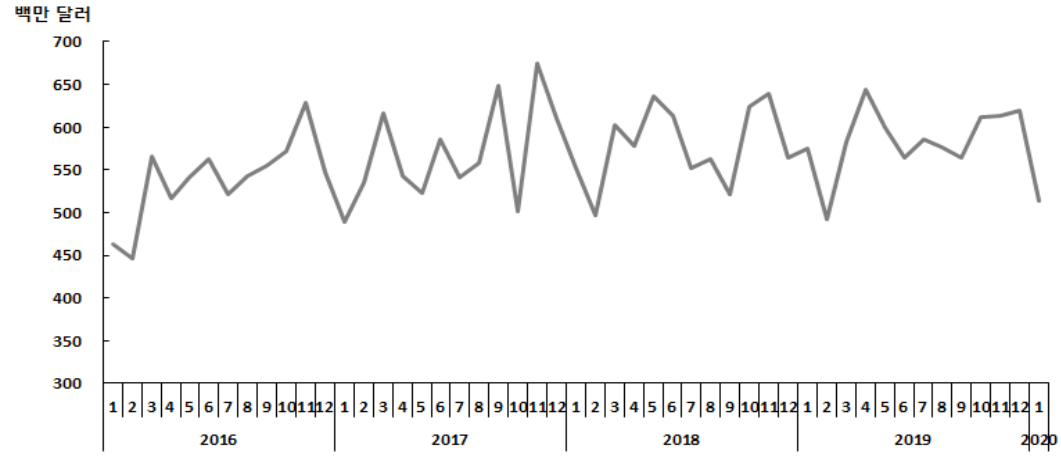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8		2019				2020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4/4		1/4		4/4		1/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73	1,829	920	1,650	1,020	1,843	902	1,746	-2.0	5.8
농산물	793	1,550	709	1,441	821	1,621	733	1,542	3.5	7.0
-곡류	14	12	12	9	13	8	14	11	13.5	18.6
-과실류	44	120	28	72	49	134	27	74	-3.3	3.6
-채소류	31	99	35	111	35	105	29	115	-17.1	4.0
축산물	36	118	38	102	43	119	45	112	19.8	10.2
-포유육류	0	3	0	2	0	3	1	4	138.8	67.8
-가금육류	11	15	15	17	12	16	13	18	-12.3	3.3
-낙농품	10	45	8	32	10	41	10	39	22.7	20.5
임산물	344	161	174	107	155	104	123	92	-29.1	-14.2
수 산 물	191	617	172	596	182	658	175	545	1.9	-8.4
전 체	1,365	2,446	1,092	2,245	1,202	2,501	1,077	2,291	-1.4	2.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년 1/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7억 4,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가 전년 동기 대비 18.6%, 3.6%, 4.0%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포유육류, 가금육류, 낙농품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8%, 3.3%, 20.5% 증가함.
- 2020년 3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6억 7,58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0%, 전월 대비 21.5%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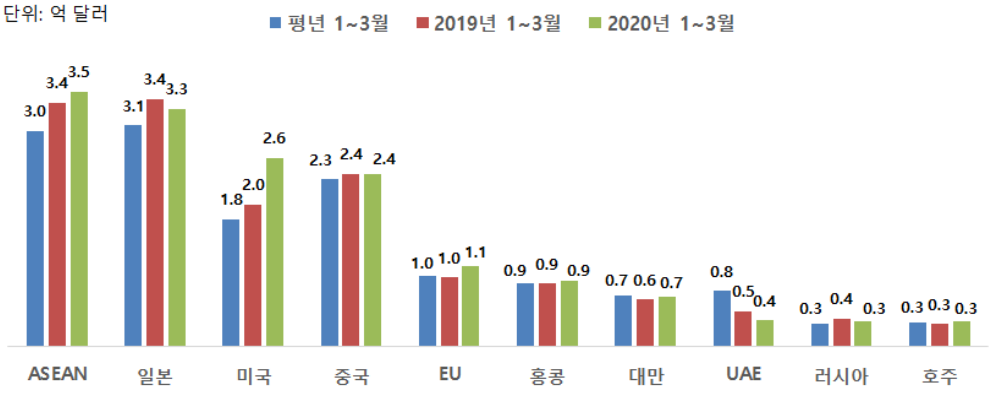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년 1~3월 농축산물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7억 5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12.2% 증가한 10억 7천만 달러임.
  - 주요 수출대상국 중 ASEAN, 미국, EU 등의 누적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그중 對 미국 누적 수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함.
- 2020년 2/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103.3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주요 항목별로는 수출계약(117.9)은 개선되나 수출국 경기(65.3)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2)]
  - 주요 수출 애로 요인으로는 원재료 가격상승(20.2%), 수출대상국의 경기 부진(16.9%)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2) 한국무역협회, '2020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2020.03.20).

주요 수출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2020년 1분기」.

4.2. 수입 동향

- 2020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334만 1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과 축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 4.0% 증가하였으나 임산물은 2.5% 감소함.
- 2020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86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함.
  - 농산물과 축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2%, 6.3% 증가하였으나 임산물은 5.1% 감소함.
  - 농산물 중 곡류는 보리, 호밀, 메밀, 귀리, 기타 곡물은 감소하였으나 쌀, 밀, 수수 등은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하였으며, 과실류는 사과, 배, 복숭아, 망고, 오렌지 등은 증가하였으나 살구, 키위, 무화과, 두리안, 레몬 등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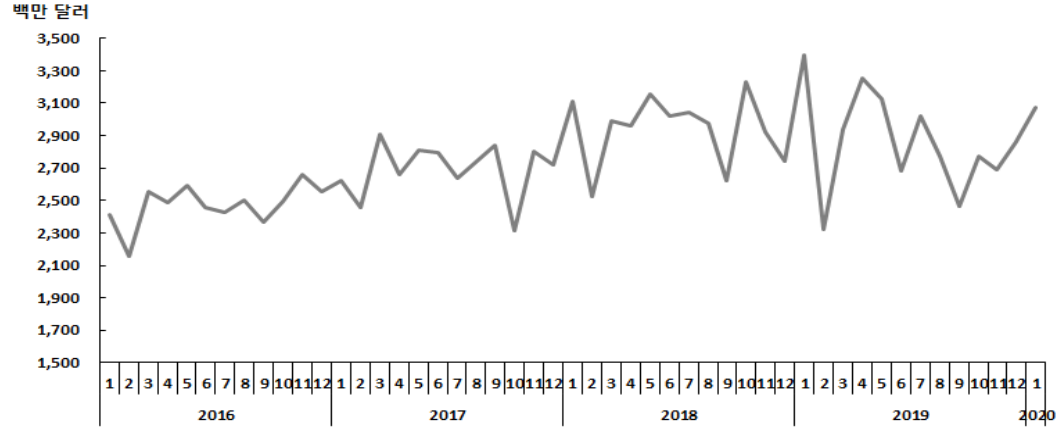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8		2019				2020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4/4		1/4		4/4		1/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4,289	8,896	13,341	8,654	13,982	8,330	13,312	8,453	-0.2	-2.3
농 산 물	8,944	5,120	8,449	4,850	9,273	4,977	9,036	5,059	7.0	4.3
-곡류	3,855	960	3,754	917	4,330	968	4,099	991	9.2	8.0
-과실류	265	419	314	504	265	389	316	494	0.7	-2.0
-채소류	329	253	311	225	341	255	296	236	-4.7	4.8
축 산 물	423	1,782	481	2,006	414	1,793	441	1,965	-8.3	-2.1
-포유육류	257	1,131	299	1,367	232	1,104	256	1,295	-14.4	-5.2
-가금육류	46	118	47	111	48	127	42	107	-9.4	-3.7
-낙농품	68	231	79	265	75	251	80	288	2.3	8.9
임 산 물	4,922	1,994	4,412	1,799	4,295	1,560	3,835	1,430	-13.1	-20.5
수 산 물	1,970	1,736	1,272	1,444	1,676	1,552	1,257	1,356	-1.2	-6.1
전 체	16,259	10,631	14,613	10,098	15,658	9,882	14,569	9,809	-0.3	-2.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년 3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9억 3,705만 달러로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월 대비 20.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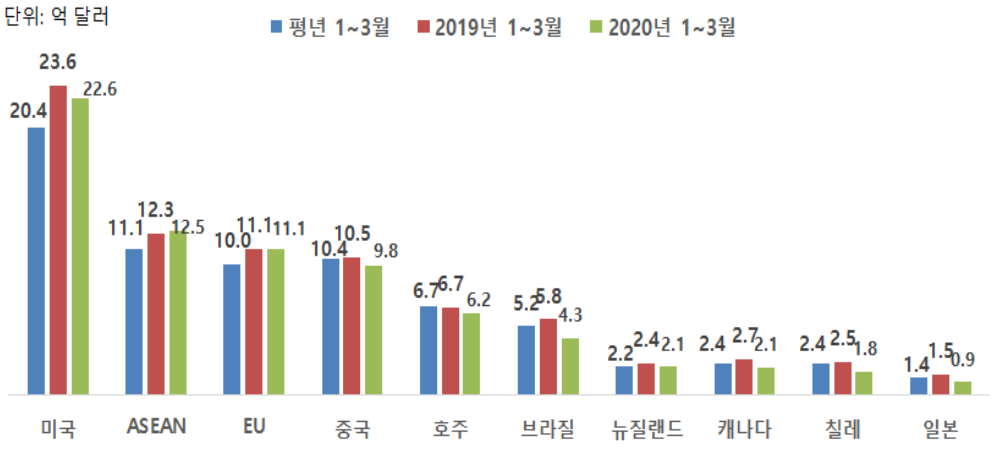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년 1~3월 농축산물 누적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84억 2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누적 수입액도 4.4% 감소한 70억 8천만 달러임.
  - 주요 수입국 중 ASEAN으로부터의 누적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으며, 나머지 주요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누적 수입액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2020년 1분기」.

4.3. 순수입 동향

- 2020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24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함.
  - 농산물 순수입량은 830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함.
  - 축산물 순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한 39만 5천 톤임.

- 2020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67억 7백만 달러임.
  - 농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으나 축산물, 임산물은 각각 2.7%, 2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9년 1/4분기		2020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421	7,005	12,410	6,707	-0.1	-4.2
농 산 물	7,740	3,409	8,303	3,517	7.3	3.2
축 산 물	443	1,904	395	1,853	-10.7	-2.7
임 산 물	4,238	1,691	3,712	1,338	-12.4	-20.9
수 산 물	1,100	848	1,082	811	-1.6	-4.4
전 체	13,521	7,853	13,492	7,518	-0.2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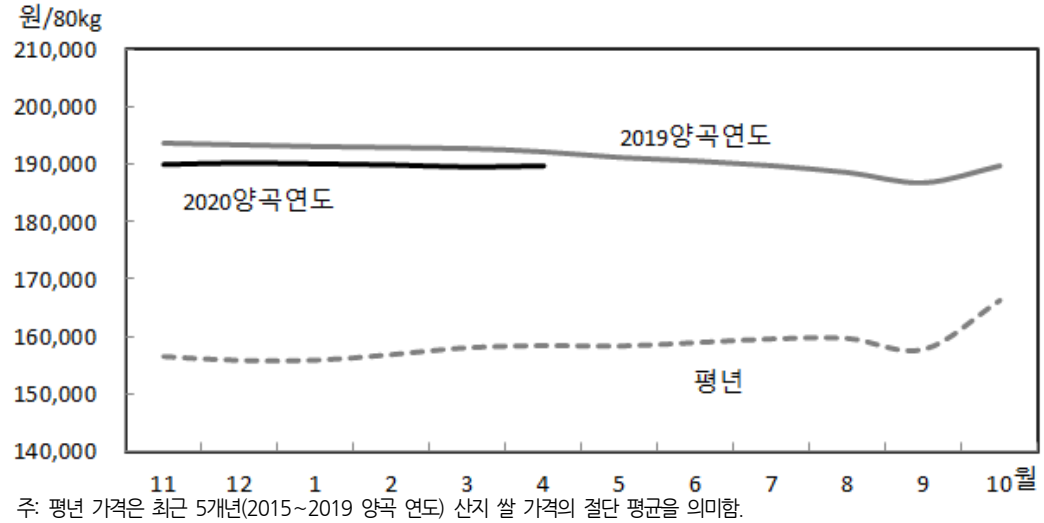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1)]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주: 평년 가격은 최근 5개년(2015~2019 양곡 연도) 산지 쌀 가격의 절단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 2020년 1/4분기 동향
  - 2020년 1/4분기 산지 쌀 가격은 2019년산 생산량 및 재고량 감소에도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경기침체와 외식 및 식자재 업체 쌀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확기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한 18만 9,837원/80kg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박성진 부연구위원(seongjin20@krei.re.kr), 김종인 부연구위원(jongin@krei.re.kr), 박한울(phu87@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지선우(bsn02@krei.re.kr), 강두현(kdh05@krei.re.kr), 안정욱(ahn0351@krei.re.kr), 김수연(sykim0722@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2월 하순 중 코로나 19 확산으로 가정 내 쌀 판매는 한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외식 및 식자재 업체 판매가 감소하여 가격 약세가 지속
- 3월 들어 가정용 판매량도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여 쌀 가격 약보합세가 지속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산지 평균 쌀 가격은 18만 9,720원/80kg으로 수확기 및 전년 대비 각각 0.1%, 1.3% 낮으나, 산지 유통업체 간 벼 거래 둔화로 조곡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월(3월) 대비 0.1% 상승
- 산지 유통업체 및 농가의 재고가 전년보다 적은 수준이고, 조곡 가격도 상승세인 점은 향후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한편, 산지 유통업체 전체 재고는 전년보다 적으나 민간RPC 등은 재고가 전년보다 많아 이들을 중심으로 출하가 집중될 경우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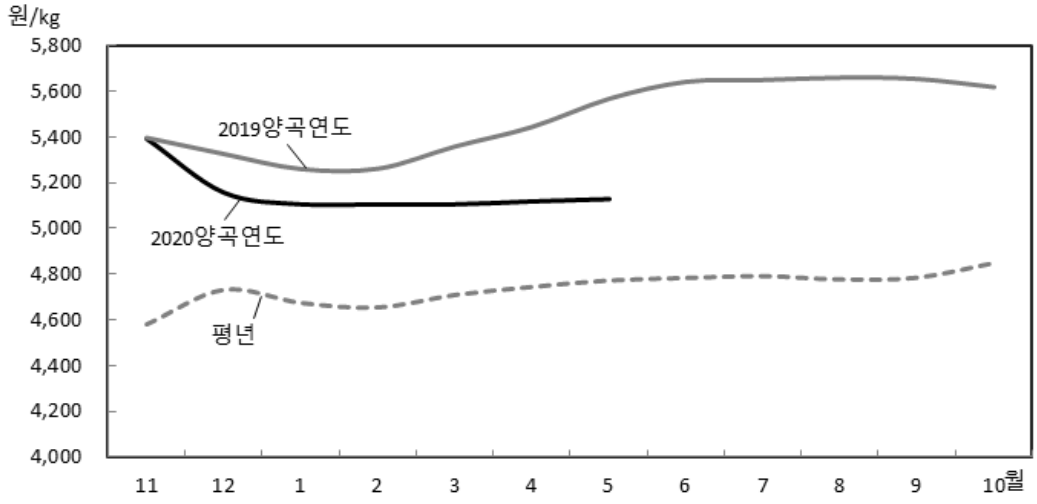
※ 산지 유통업체 전체 재고(4.30. 기준)는 전년 대비 7.6% 감소한 71만 6천 톤이나, 업체별로는 농협이 감소(8.7%)한 것에 반해, 민간은 증가(1.5%)

- 가격 상승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하고 있어 2/4분기 쌀 가격은 현재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
- 앞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되고 소비 감소 현상이 완화되어 과거 수준으로 재고가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단경기에 접어들어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계절진폭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과거 월평균 재고 소진량을 고려하면 단경기 이내에 구곡 재고가 거의 소진될 것으로 전망

1.2. 콩

국산 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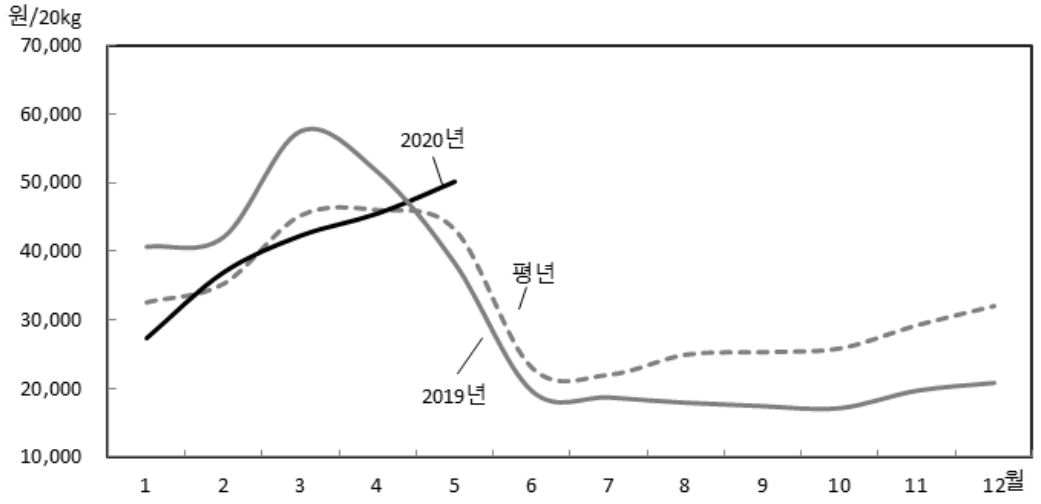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5~2019 양곡 연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년 1/4분기 동향
  - 2020년 1/4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5,103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하락
  - 2019년산 콩 생산량이 전년 대비 17.8% 증가하였고, 정부 수매물량 증가에 따른 실수요업체들의 수요 관망세 등의 영향으로 1/4분기 콩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산 콩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정부 수매물량이 1만 7천여 톤에 달해 시장공급물량은 전년보다 감소해 2/4분기 국산 콩 가격(백태 상품)은 1/4분기 대비 강보합세 전망
  - 2/4분기에는 순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진행되면서 급식 관련 수요도 증가하여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1.3. 감자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 가격은 2015~2019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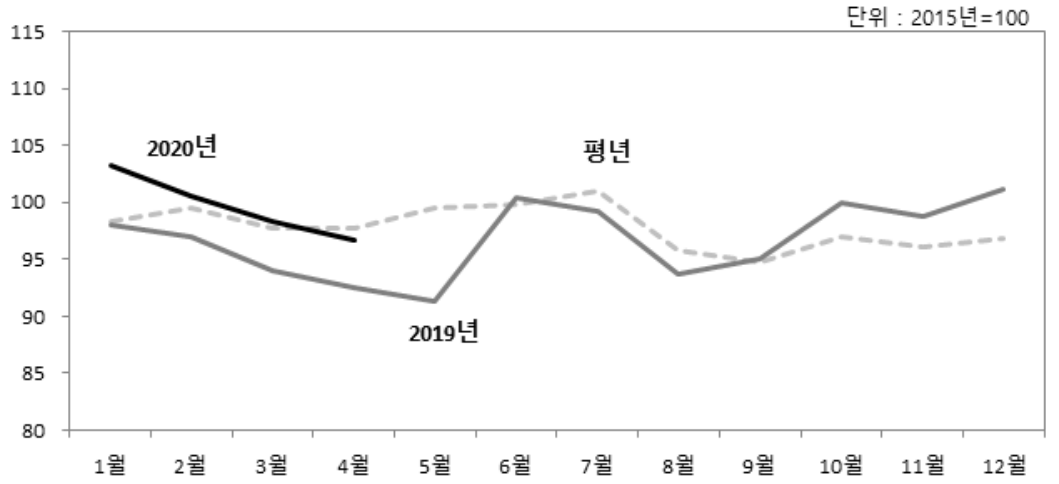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수미(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35,552원/2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평년 동기 대비 5.6% 하락
  - 1/4분기 수미 가격은 저장 고랭지감자 및 시설 봄 감자 출하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 폭이 컸고, 평년보다도 낮게 형성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4분기 수미(상품) 도매가격은 4~5월 기간 중 출하 비중이 높은 김제지역의 시설 봄 감자 작황 부진 영향과 노지 봄 감자 생산량 감소 전망으로 인해 전년 대비 상승 전망

    ※ 노지 봄 감자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0.5% 감소할 전망이고, 현재까지의 작황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

1.4. 국제 곡물

국제 곡물 선물가격 추이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 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 가격은 2015~2019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20년 1/4분기 동향
  - 2020년 1/4분기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2015년=100)는 전 분기 대비 0.8% 상승한 100.7임.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2, 3월 곡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겨울 밀 파종 부진과 미·중 무역 협상 1차 합의 서명에 따른 1월 가격상승 영향이 1/4분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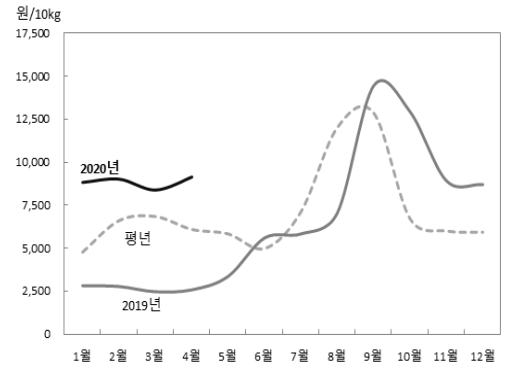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주요 곡물의 수요 감소와 유가 하락에 따른 바이오에탄올 생산 감소 지속으로 2020년 2/4분기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3.2% 하락한 97.7로 전망됨.
  - 5월 국제 곡물 조기경보지수[2]는 -2.20으로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정' 단계가 전망됨.

– 그러나 식량안보 위기를 우려한 주요국의 수출 제한 조치와 국경 봉쇄 등은 국제 곡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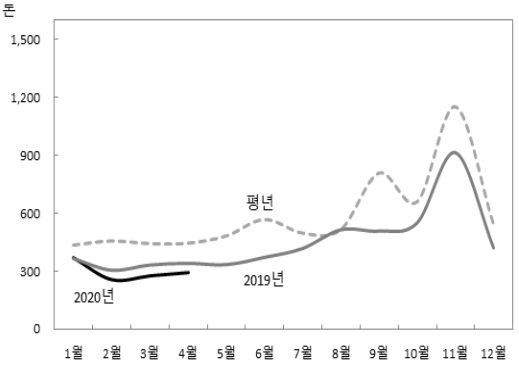
2. 엽근채소[3)]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겨울 배추 저장 출하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8,730원/10kg
    * 2020년 가격: (1월) 8,810원/10kg, (2월) 9,010원, (3월) 8,360원
    * 1/4분기 가격: (2020년) 8,730원/10kg, (2019년) 2,700원, (평년) 6,07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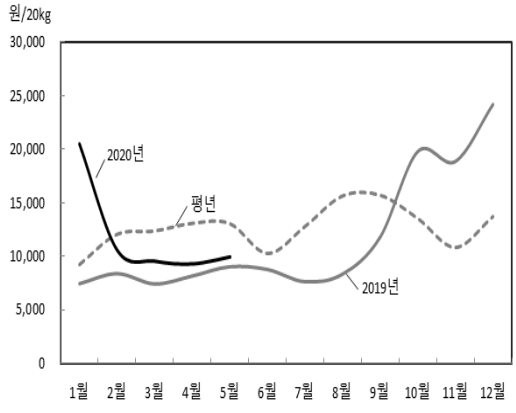
2) 국제 곡물 조기경보 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조정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가 운영함. 조기경보 지수는 0.0 이하 '안정', 0.0~0.5 '주의', 0.5~1.0 '경계', 1.0 이상 '심각'을 나타냄.

3)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한은수(hanes012@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 박수은(pse548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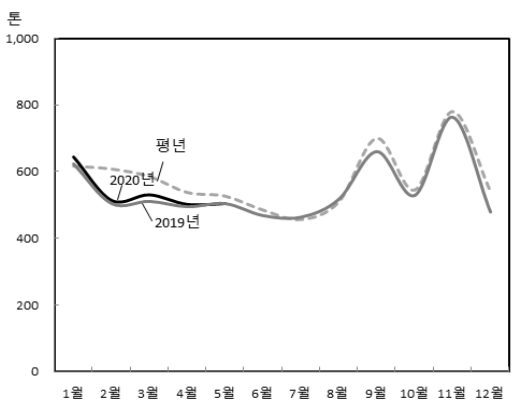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봄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5%, 9% 많은 28만 3천 톤 내외 전망
    *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0%, 9% 증가한 2,975ha
    * 단수는 생육기(4월) 저온 등으로 전년보다 5% 감소하나, 평년과는 비슷한 9,516kg/10a
  - 2/4분기 배추 출하량은 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겠으나, 겨울 배추 출하량 감소 영향이 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1%, 4% 적을 전망
  - 2/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전년(3,860원/10kg) 및 평년(5,640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2020년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
  - 2020년 고랭지배추 재배 의향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6%, 7% 감소한 4,700ha 전망
    * 6월 하순부터 주 출하되는 준고랭지 1기작 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5% 내외 감소 전망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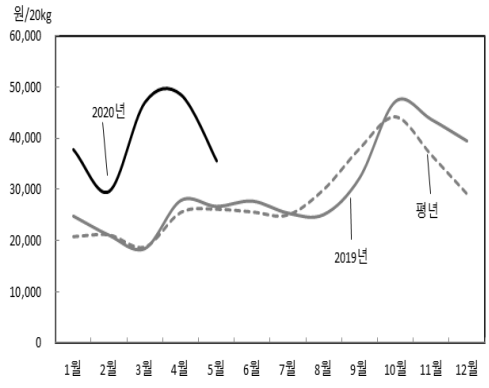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높은 13,530원/20kg
  - 1월은 전년도 태풍 피해로 인한 월동 무 초기 출하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보다 높았으나, 2~3월은 월동 무 후기 출하분 증가로 평년 대비 약세
    * 2020년 가격: (1월) 20,450원/20kg, (2월) 10,600원, (3월) 9,560원
    * 1/4분기 가격: (2020년) 13,530원/20kg, (2019년) 7,746원, (평년) 11,200원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봄 무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4%, 15% 감소한 10만 톤 전망
    *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5% 증가하나 평년보다 15% 감소한 919ha
    * 단수는 생육기(4월) 저온 등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8%, 1% 감소한 10,840kg/10a
  - 2/4분기 무 출하량은 봄 무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월동 무 저장 출하량이 많아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5%, 4%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
  - 2/4분기 무 도매가격은 전년(8,650원/20kg)과 평년(12,120원)보다 낮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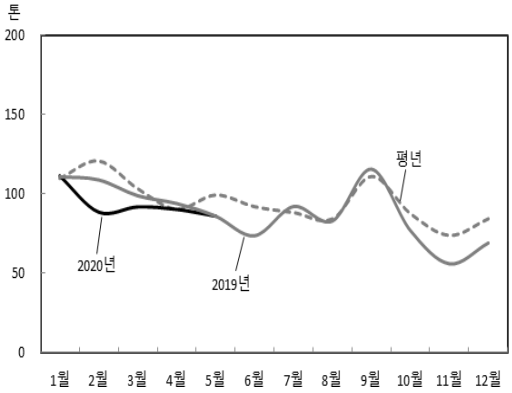
- 2020년 고랭지 무 재배 의향 면적
  - 2020년 고랭지 무 재배 의향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7%, 5% 감소 전망
    * 전년도 출하기(8~10월) 가격 약세로 재배 의향 감소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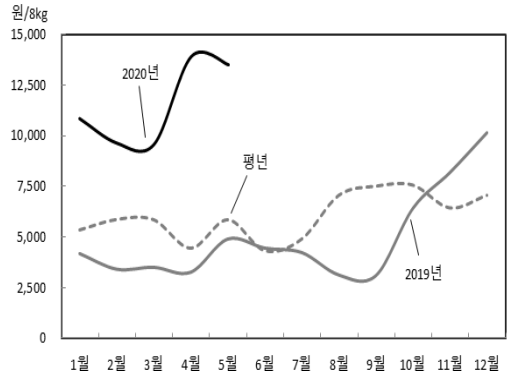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은 2019년산 겨울 당근 출하량 감소로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38,190원/20kg
    * 2020년 가격: (1월) 37,835원/20kg, (2월) 29,679원, (3월) 47,065원
    * 1/4분기 가격: (2020년) 38,193원/20kg, (2019년) 21,498원, (평년) 20,194원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봄 당근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9%, 1% 증가한 3만 1천 톤 전망
    *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0%, 11% 증가한 1,002ha
    * 단수는 저온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 9% 감소한 3,060kg/10a
  - 2/4분기 당근 출하량은 봄 당근 출하가 본격화되겠으나, 겨울 당근 출하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9%, 12% 감소 전망
  - 2/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전년(27,470원/20kg)과 평년(25,740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다만 봄 당근 출하가 4월 이후 본격화되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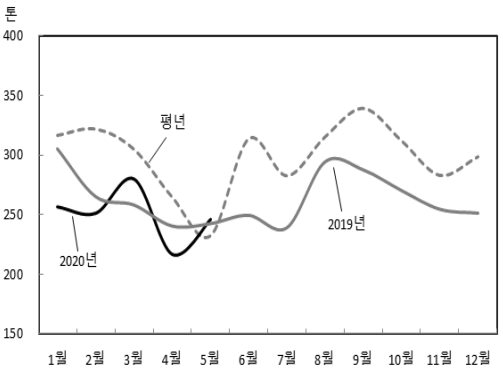
- 2020년 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
  - 2020년 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출하기(10~11월) 가격 강세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2%, 42% 증가한 266ha로 전망
    * 주로 무, 감자에서 작목전환이 이루어졌으며, 파종은 주산지 저온으로 평년(4월 중순)보다 늦은 4월 하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2019년산 겨울 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10,030원/8kg
    * 2020년 가격: (1월) 10,858원/8kg, (2월) 9,653원, (3월) 9,591원
    * 1/4분기 가격: (2020년) 10,034원/8kg, (2019년) 3,685원, (평년) 5,716원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봄 양배추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4%, 3% 증가한 7만 2천 톤 전망

  *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9%, 2% 증가한 1,498ha

  * 단수는 일교차로 일부 결구가 원활하지 않아 전년보다 5%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1% 증가한 4,831kg/10a

- 2/4분기 양배추 출하량은 봄 양배추 출하가 본격화되겠으나, 겨울 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1%, 7% 감소 전망

- 2/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전년(4,190원/8kg)과 평년(4,9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다만 봄 양배추 출하가 5월부터 증가하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2020년 고랭지양배추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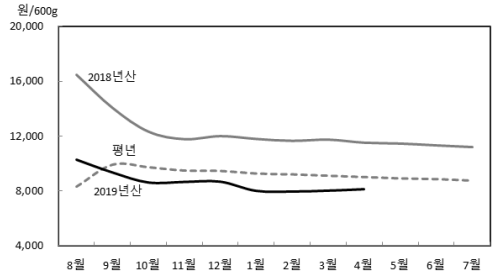
- 2020년 고랭지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타 품목의 재배 의향이 낮아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5%, 9% 증가한 1,752ha로 전망

  * 주로 배추, 감자에서 작목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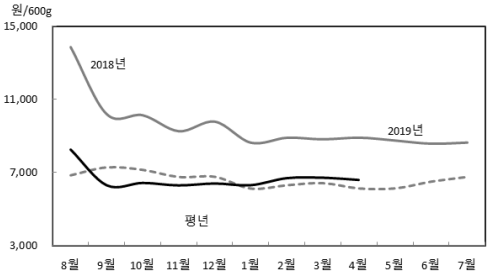
3. 양념채소[4)]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 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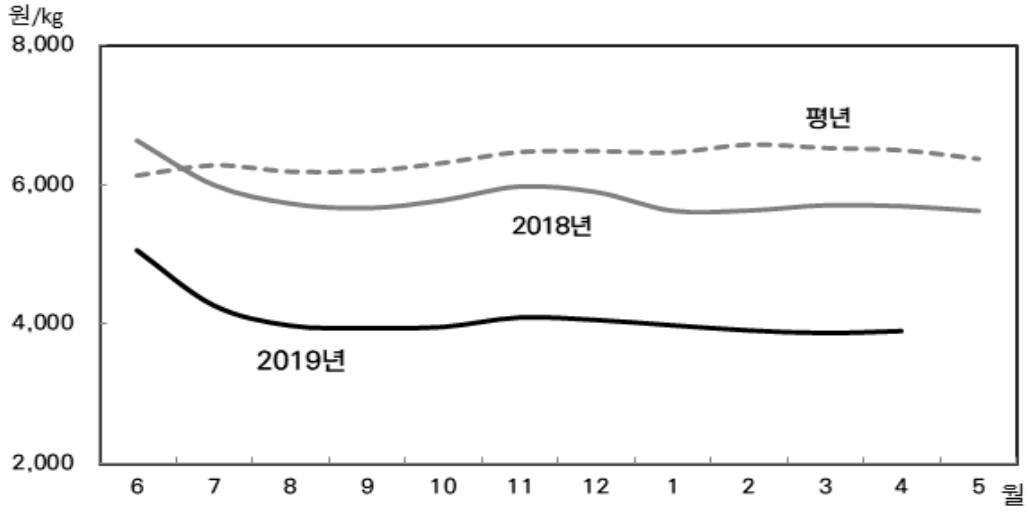
주 1. 평년 가격은 2014년 8월~2019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20년 1분기 동향
  - 1분기 건고추 도매가격 및 산지 가격(화건, 600g 기준)은 공급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25% 하락
    * 도매가격: (금년) 7,990원/600g, (전년) 11,741원, (평년) 9,217원
    * 산지가격: (금년) 6,584원/600g, (전년) 8,768원, (평년) 6,279원
  -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2019년산 건고추 반입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동기(3,834톤)보다 9% 많은 4,159톤
- 2020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건고추 도매가격 및 산지 가격(화건, 상품 600g)은 전년 대비 각각 29%, 24% 낮은 8,120원, 6,607원
  - 2분기 건고추 도매가격은 재고량이 많아 전년 동기(11,444원/600g) 대비 낮을 전망

4)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원태 전문연구원(wtkim@krei.re.kr), 신성철 (ssc0729@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양진석(mozz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3.2. 마 늘

깐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4년 6월~2019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년 1분기 동향
  - 깐마늘 1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2019년산 저장 마늘 출고량 증가로 전년보다 30% 하락
    * 1분기 평균 도매가격: (금년) 3,936원/kg, (전년) 5,658원, (평년) 6,524원

- 2020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깐마늘 가격은 2019년산 출고량 많아 전년보다 31% 낮은 수준
    * 4월 도매가격: (금년) 3,915원/kg, (전년) 5,696원, (평년) 6,496원
  - 2020년 2분기 마늘 도매가격은 2020년산 햇마늘 출하가 시작되면서 1분기보다 상승 전망

- 2020년 4월 말 기준, 2019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약 1만 5천 톤
  - 2019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1% 많은 10만 5천 톤 내외
  - 저장·가공업체 표본조사 결과, 4월 말 기준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저장업체 출고량 증가로 전년보다 감소
    * 월동기 이후 기상 여건 호조가 계속되면서 2020년산 햇마늘 조기 수확 우려 확산에 따른 저장 마늘 출고 의향 확대

2019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19	105,289	87,755	14,786
2018	84,574	76,439	15,669
평년	107,000	92,000	13,450
전년 대비	11.3	14.8	-5.6
평년 대비	-1.6	-4.6	9.9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9년산 15.7%, 2018년산 13.6%, 평년 10.3%)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고, 국내산 정부 비축 물량 및 TRQ는 미포함.
2. 평년 입고량과 재고량은 냉장협회의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4월 20일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치

- 2020년산 마늘 생산 동향
  - 2020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평년보다 3% 많으나 전년 대비 8% 적은 25,376ha(통계청, 4. 20. 발표).
  - 3월 중 시행된 정부의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을 감안할 경우 재배면적은 평년 수준인 24,870ha

2020년산 마늘 재배면적

단위: ha, %

2020년산	2019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25,376	27,689	24,603	-8.4	3.1

자료: 통계청

- 2020년산 마늘 단위당 수확량은 전년과 비슷

  * 2020년산 마늘 10a당 예상 단수는 조사치를 활용할 경우 1,407kg, 농업관측본부 단수예측모형은 1,391kg 추정

- 2020년산 마늘 생산량 평년 대비 증가 전망

  * 2020년산 마늘 생산량은 전년보다 적고 평년보다 많은 34만 6천~35만 톤 추정

  * 4월 불규칙한 강우와 저온에 이어 5월 고온 예보로 생육상황은 변동 가능성

2020년산 마늘 추정 생산량

단위: ha, kg/10a,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0	24,870	1,391~1,407	345,942~349,956
2019	27,689	1,400	387,671
평년	24,603	1,239	304,839
전년 대비	-10.2	-0.6~0.5	-10.8~-9.7
평년 대비	1.1	12.3~13.6	13.5~14.8

주: 2020년산 재배면적은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이 반영된 수치이며,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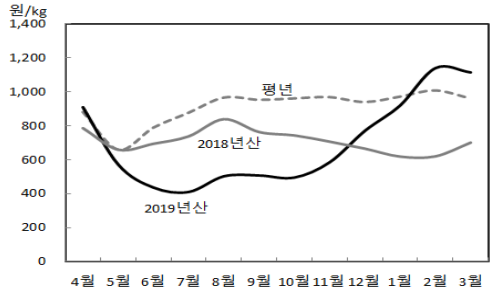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수급 대책 추진(5월 1일 발표)

- 평년 대비 과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대책 추진
  - 출하 정지(1만 5천 톤) : 난지형(대서·남도) 선제적 출하정지(1,000ha) (5월)
  - 정부 수매(1만 톤) : 수확기 국내산 마늘(대서·남도) 수매비축 (6~8월)
  - 농협 수매(1만 5천 톤) : 판로 처가 없는 비계약 농가 물량 수매 (6월~)
    ※ 정부 및 농협 수매물량은 6월 말 생산량 확정(KREI 실측) 결과와 출하정지(산지 폐기) 효과에 따른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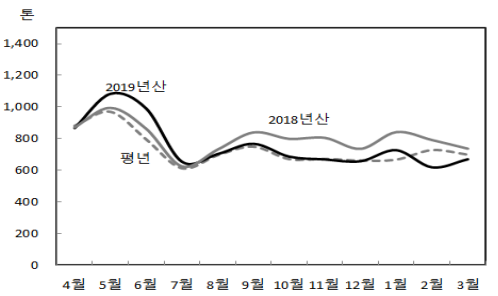
- 수출, 소비촉진, 수입 대체 등 수요 확대 대책 추진
  - 수출 확대(3천 톤) : 수출 전문단지 지정(40ha),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7→14%) 등
  - 소비 촉진(4천 톤) : 지자체 주도 택배비 지원, 소비지 직거래 실시 등 (6월~)
  - 수입산 대체(2천 톤) : 수입산 종자용 쪽 마늘 대체, 국산 사용 유도
  - 자율적 수급조절(3천 톤) : 생산자 중심 자율적 수급조절 (규격 이하 출하 금지 등)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4년 4월~2019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1분기 동향
  - 1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공급량 감소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64%, 8% 높은 상품 kg당 1,058원
    * 1분기 월별 국내산 양파 일평균 반입량: (1월) 727톤, (2월) 619톤, (3월) 655톤
- 2020년산 양파 생산 동향 및 전망
  - 양파 재배면적 실측 조사 결과, 2020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8%, 12% 감소
  - 4월 말까지의 생육상황을 감안할 경우 2020년산 양파 생산량은 126~128만 톤으로 평년보다 4% 내외 적을 전망

2019년산 양파 추정 생산량

단위: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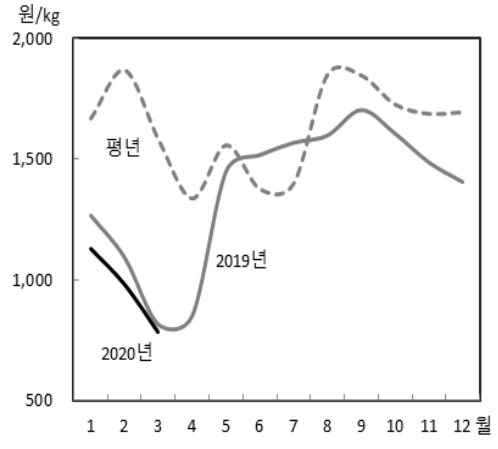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0	17,930	7,039~7,148	1,262,004~1,281,555
2019	21,777	7,322	1,594,450
평 년	20,404	6,476	1,321,404
전년 대비	-17.7	-3.9~-2.4	-20.9~-19.6
평년 대비	-12.1	8.7~10.4	-4.5~-3.0

주: 2019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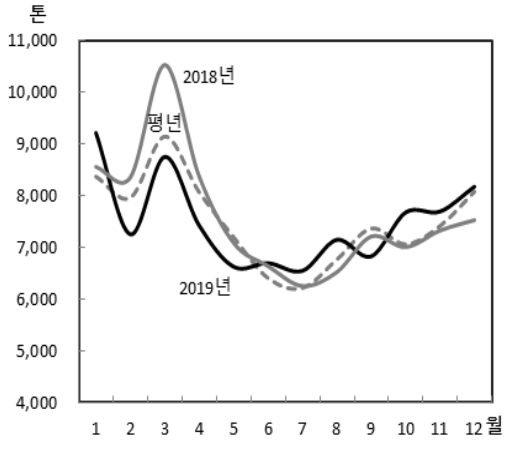
- 2020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990원으로 전년(910원)과 평년(820원) 대비 각각 9%, 8% 상승
  - 4월 상순 가격은 1,080원이었으나, 이후 조생종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며 반입량이 증가하여 중순 및 하순 가격은 각각 980원, 910원으로 하락세 전환
  - 5~6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5년 1월~2019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1분기 동향
  - 대파 1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970원/kg(중품 800원/kg)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 44% 하락
    * (금년) 965원/kg, (전년) 1,060원, (평년) 1,707원
    * (1월) 1,127원/kg → (2월) 982원 → (3월) 787원
  - 1~3월 평균 반입량은 전년보다 4% 감소

- 1분기 가격은 출하량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전년 대비 하락

• 2020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854원/kg)보다 높은 960원/kg
- 2분기는 봄 대파가 주로 출하되는 시기로 경기, 전북, 충청 등에서 주 출하될 예정
- 2분기 가격은 봄 대파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고랭지대파 주 출하지인 강원은 감자, 배추 등에서 작목전환이 이루어져 전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겨울 대파 주 출하지인 전남의 재배(의향)면적은 가격 약세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전망

4~7월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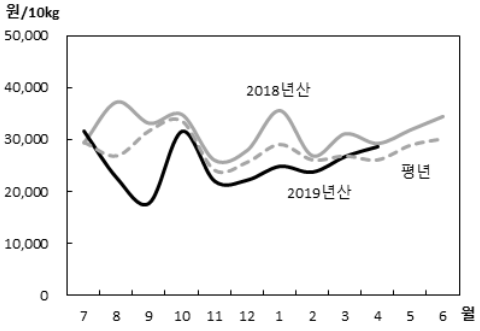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전남	전북		
1.6	5.2	-2.6	-6.0	-4.8	-1.8	-2.4

자료: 농업관측본부, 4월 20일 표본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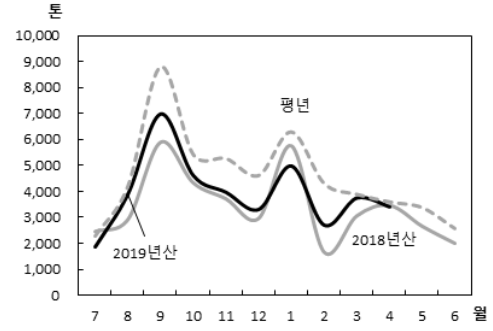
4. 과일[5)]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 (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4~2018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후지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저장량 증가로 반입량이 9% 늘어 전년보다 20%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5,1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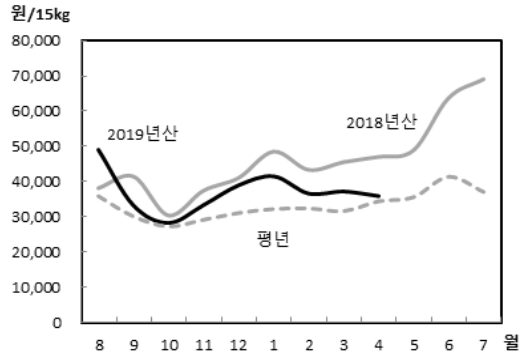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후지 도매가격은 저장량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 전년보다 2%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8,600원이었음.
  - 5월 출하량은 저장량이 늘어 전년보다 5% 증가하고, 6월 이후에도 1% 많을 것으로 예측됨.

5)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윤종열 부연구위원(jyyoon0712@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윤성주(ysj0811@krei.re.kr), 홍승표(cfc821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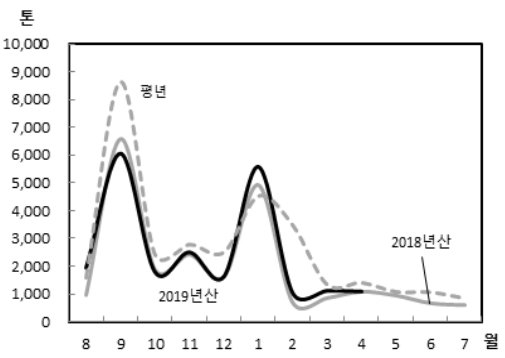
- 2020년 재배면적 추정
  - 2020년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3만 2,921ha로 추정됨. 성목면적은 고령목의 품종 갱신이 늘어 전년보다 3% 감소하고, 유목면적은 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품종별로는 후지와 홍로가 전년 대비 각각 1% 감소한 반면, 감홍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기타품종 재배면적은 아리수, 시나노골드 위주 품종 전환이 많아 전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 (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4~2018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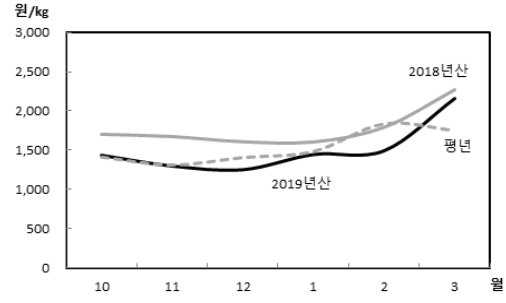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증가(전년 대비 20%)로 전년 대비 16%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8,500원이었음.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23% 하락한 상품 15kg 상자에 3만 6,000원이었음. 5월 이후 출하량도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수확기 잦은 강우로 당도 및 경도가 낮고 과피 얼룩 등 품질 저하로 상품과가 적어 등급 간 가격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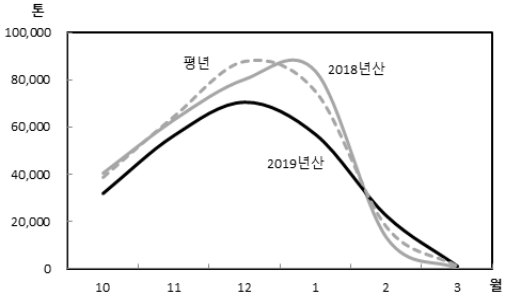
- 2020년 재배면적 추정
  - 2020년 배 재배면적은 산업단지 편입 및 도로수용, 농가 고령화 등으로 인한 폐원으로 전년보다 3% 감소한 9,327ha로 추정됨. 다만, 유목면적은 국내 육성 신품종 묘목 보급 및 고접갱신 지원 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품종별로는 기존 재배품종인 신고와 원황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4%, 3% 감소한 반면, 신화·화산·황금·창조·그린시스 등 기타품종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감귤 출하량 동향



주: 평년은 2014~2018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출하연합회

- 2020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노지 온주 평균 도매가격(감귤 출하연합회)은 전년보다 10% 하락한 kg당 1,700원이었음.
  - 월별로 보면, 1월 노지 온주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전년 대비 -32%)에도 전년보다 10% 낮은 1,440원이었음. 이는 수확기 태풍과 잦은 강우 영향으로 중결점과 비율 증가, 당도 저하 등 품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임. 2~3월 평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10% 하락한 1,830원/kg이었음.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5월 하우스 온주 출하량은 3월과 4월에 밤낮 일교차가 적어 착색 및 과 비대가 다소 늦어져 전년 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6월 이후에는 추석 출하 대비 극조생 보조 가온 면적 증가와 착색 지연 등으로 다소 늦어졌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전년보다 4% 많을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재배면적 추정
  - 2020년 감귤류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1만 9,991ha로 추정됨. 품종별로 노지 온주는 시설 하우스로의 작형 전환, 도시 개발 등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한 반면, 월동 온주(비가림)와 하우스 온주 재배면적은 각각 1%, 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만감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한 4,058ha로 추정됨. 만감류 중 한라봉은 전년보다 3% 감소한 반면, 천혜향과 레드향, 기타 만감류(카라향 등)의 재배면적은 각각 4%, 6%,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4.4. 포도

- 2020년 재배면적 추정
  - 2020년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한 1만 2,451ha로 추정됨. 작형별로는 노지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 감소한 1만 337ha, 시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한 2,114ha로 파악됨.
- 2020년 2/4분기 전망
  - 4~5월 출하면적은 가온 시설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8% 줄고, 6월 출하면적은 시설 캠벨얼리와 거봉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6% 적을 전망임. 7월 이후 출하면적도 전년보다 3% 감소하나, 만생종인 무가온 샤인머스캣 출하가 본격화되어 4~6월에 비해 감소 폭이 작을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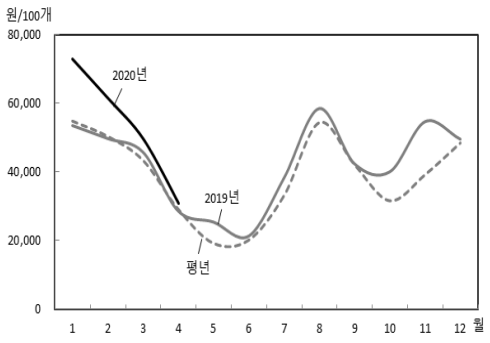
4.5. 복숭아

- 2020년 재배면적 추정
  - 2020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2만 680ha로 추정됨. 유목면적은 고령목의 품종 갱신이 증가하였으나, 유목의 성목화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성목면적은 유목의 성목화에도 불구하고 샤인머스캣 등으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많아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품종별로는 유모계와 천도계 재배면적 모두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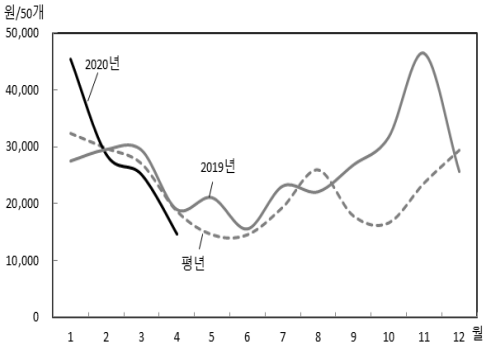
5. 과채[6)]

5.1. 오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1/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1월 7만 3,000원, 2월 6만 1,500원, 3월 4만 9,6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 가격은 6만 1,4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 상승하였음.
  - 1월 반입량은 전년 동월보다 15% 적었고, 2월은 비슷, 3월에는 12% 많아 1/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2% 증가하였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1월 4만 5,400원, 2월 2만 8,700원, 3월은 2만 5,2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 가격은 3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 상승하였음.
  - 1/4분기 취청오이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전남지역의 작황이 좋지 않아 전년 동기보다 14% 감소하였음.

6)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윤종열 부연구위원(jyyoon0712@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이연옥(superiorl@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8% 높은 상품 100개에 3만 700원이었음. 오이 반입량이 전년보다 많았으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가정용 판매가 많은 중·소형마트의 거래량 증가가 시세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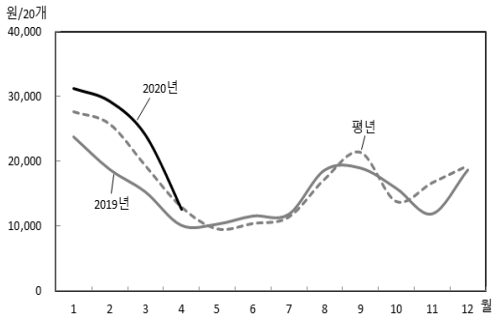
– 5~6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과 경기·강원지역의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4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22% 낮은 상품 50개에 1만 4,7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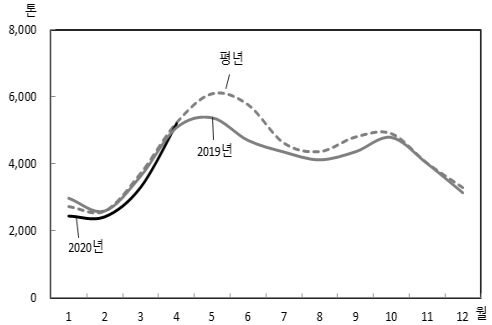
– 5~6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과 전남지역의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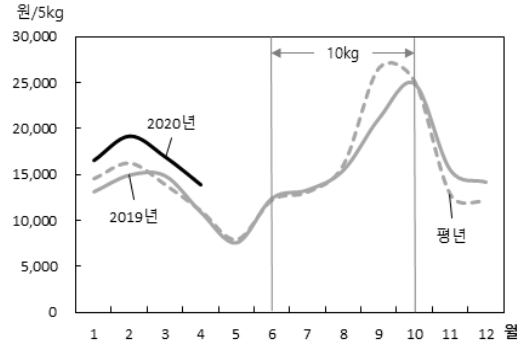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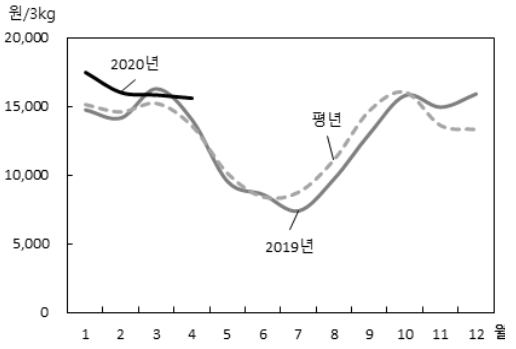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1월 3만 1,300원, 2월 2만 9,300원, 3월에는 2만 4,0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 가격은 2만 8,2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7% 상승하였음.
  - 1/4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경남 진주의 작황이 나빠 전년 동기보다 11% 감소하였고, 소비 대체재인 쥬키니 호박 반입량도 18% 적었음.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동월보다 23% 높은 상품 20개에 1만 2,500원이었음.
  - 5~6월 애호박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의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1/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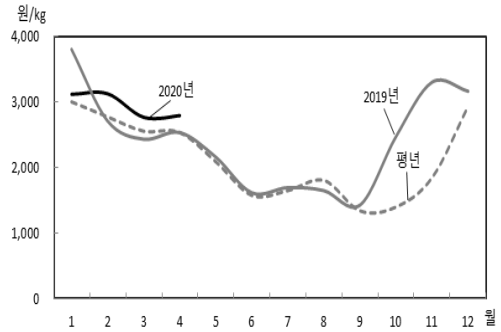
- 1/4분기 일반토마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월 1만 6,500원, 2월 1만 9,100원, 3월 1만 6,9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 가격은 1만 7,500원으로 전년 대비 23% 하락하였음.
- 1/4분기 반입량은 영호남 지역의 도시 개발과 작목 전환으로 출하면적이 줄었고,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해 전년 대비 9% 감소하였음.
- 1~2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3kg 상자에 1만 6,800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하였음. 반입량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소비 대체재인 원형 방울토마토 가격 강세로 대추형 방울토마토 가격도 동반 상승함.
- 3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평균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3% 하락한 상품 3kg 상자에 1만 5,600원이었음.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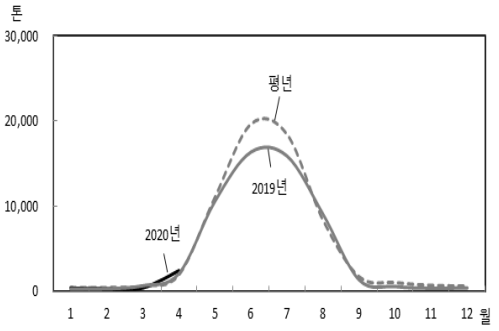
- 4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28% 높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3,900원이었음.
- 5~6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도시 개발과 작목 전환으로 출하면적이 줄고, 전반적으로 과 크기도 작아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4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생육 부진으로 반입량이 줄면서 전년보다 11% 상승한 상품 3kg 상자에 1만 5,600원이었음.
- 5~6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임. 지난해 조기 정직한 충청과 호남지역의 출하 종료 시기가 전년보다 1개월가량 빨라 출하면적이 감소하고, 과 크기가 작아 단수도 줄 것으로 예상됨.

5.4.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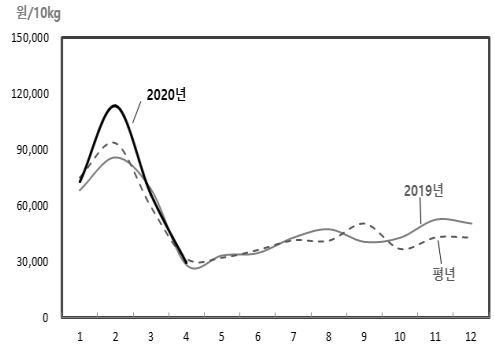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1/4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1월 3,110원, 2월 3,120원, 3월 2,770원이었음. 1/4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 높은 3,000원이었음.
  - 수박 1/4분기 반입량은 겨울철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 및 정식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20%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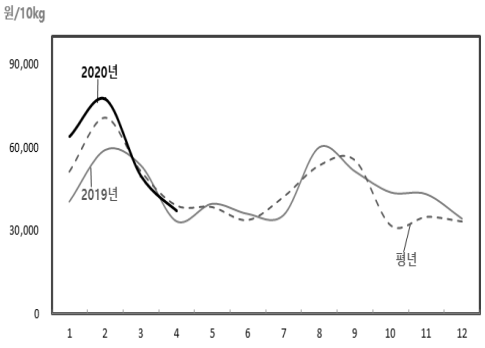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나, 11% 높은 상품 1kg에 2,800원이었음. 이는 수정기 기상 여건이 좋아 당도 등 품질이 양호하였기 때문임.
  - 5월 수박 출하량은 전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정식면적이 확대되었고,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 6월 출하면적은 충청지역에서 출하시기를 5월로 앞당긴 농가가 많고, 멜론 등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도 늘어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5.5. 풋고추

청양계 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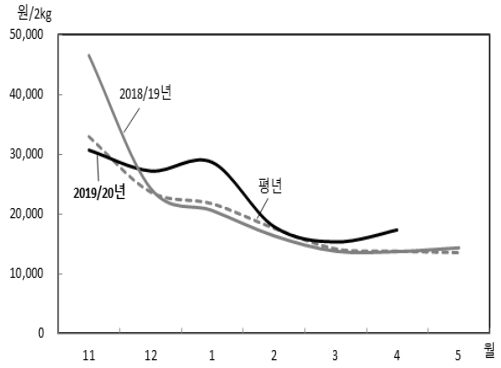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1/4분기 동향
  - 청양계 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월 7만 2,700원, 2월 11만 3,300원, 3월 6만 5,900원이었음. 1/4분기평균 가격은 전년(7만 4,100원)보다 13% 높은 8만 4,000원이었음.
  - 1/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1% 감소하였음. 이는 경남지역의 청양계 풋고추 작황이 부진하였기 때문임.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월 6만 4,000원, 2월 7만 7,400원, 3월 4만 9,8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5만 900원)보다 22% 높은 6만 3,700원이었음.
  - 일반풋고추 1~3월 반입량은 주산지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16% 많았음. 반입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도매가격이 높았던 이유는 소비 대체재인 오이맛고추, 청양계 풋고추의 가격이 높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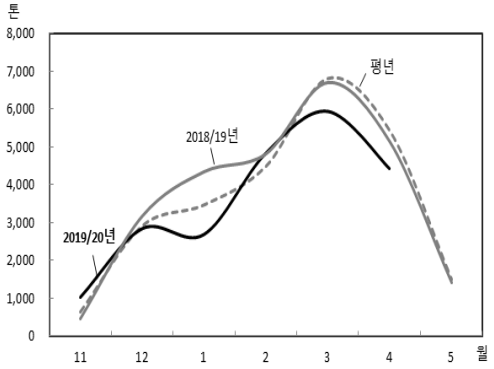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청양계 풋고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4%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9,300원이었음. 4월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2%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7,300원이었음.
  - 청양계 풋고추 4월 반입량은 전년보다 3% 많았으며, 이는 경남에서 재배면적 증가와 최근 기상 여건이 좋아 단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5~6월 청양계 풋고추 출하량은 영남과 호남의 정식면적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5월 일반풋고추 출하량은 작황이 좋아 전년보다 증가하나, 6월은 정식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됨.

5.6. 딸기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딸기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과거 5개년의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1/4분기 동향
  - 딸기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월 2만 8,700원, 2월 1만 7,900원, 3월 1만 5,3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 가격은 2만 600원으로 전년 동기(1만 6,800원) 대비 22% 높았음.

- 딸기 1/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였음. 이는 딸기 재배면적은 증가하였으나, 정식 이후 일조량 부족, 강우 등 기상 악화로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임.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딸기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보다 27% 높은 상품 2kg 상자에 1만 7,300원이었음.
- 5~6월 딸기 출하량은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 동기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6. 축산[7)]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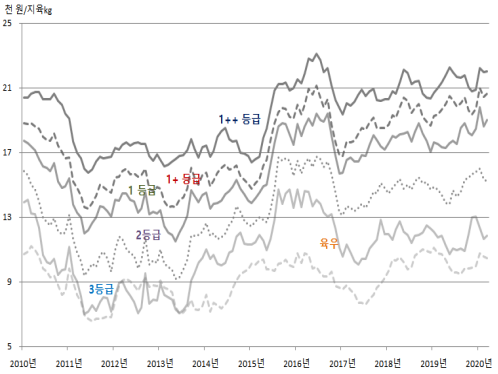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구분	18년	19년				20년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p)
사육 농장수	97	96	95	94	94	93
총 마릿수	3,113	3,059	3,242	3,269	3,237	3,162
가임 암소	1,434	1,402	1,426	1,480	1,491	1,460

주: 2020년 3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육우) 1/4분기 동향
  -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작년 12월(323만 7천 마리)보다 2.3% 감소한 316만 2천 마리였음(전년 동월 305만 9천 마리보다 3.4% 증가).
    * 3월 한우 사육 마릿수 300만 6천 마리, 육우 15만 6천 마리
    * 가임 암소 마릿수 146만 마리(전년 동월 140만 2천 마리보다 4.1% 증가)
  - 1/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 분기 18,247원/지육kg보다 5.5% 상승한 19,258원이었음(전년 동기 17,538원보다 9.8% 상승).

7)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김명수(kms86@krei.re.kr), 심민희(min2727@krei.re.kr), 정세미(wjdtpal55@krei.re.kr), 서강철(softvalue@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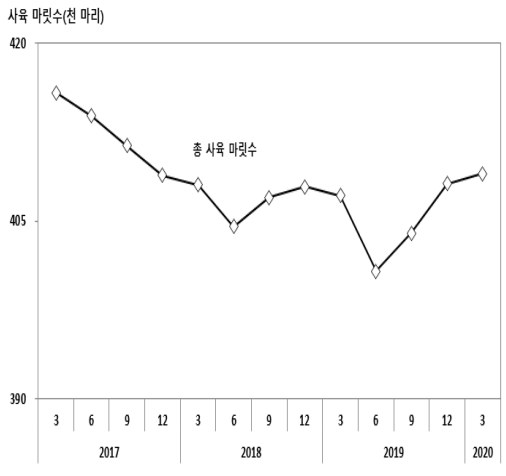
- (한우) 2/4분기 동향 및 전망
  - 6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307만 8천 마리)보다 2.9% 증가한 318만 3천 마리로 전망됨.
  - 2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18,500~19,500원으로 전망됨.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2019년(A)	2020년	2020년(B)	B/A
사육 마릿수	6월 309만 4천 마리	3월 300만 6천 마리	6월 318만 3천 마리	2.9%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2분기 17,519원	1분기 19,258원	2분기 18,500~19,500원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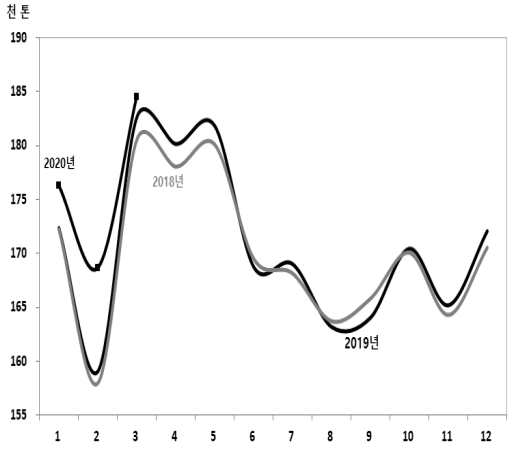
6.2. 젖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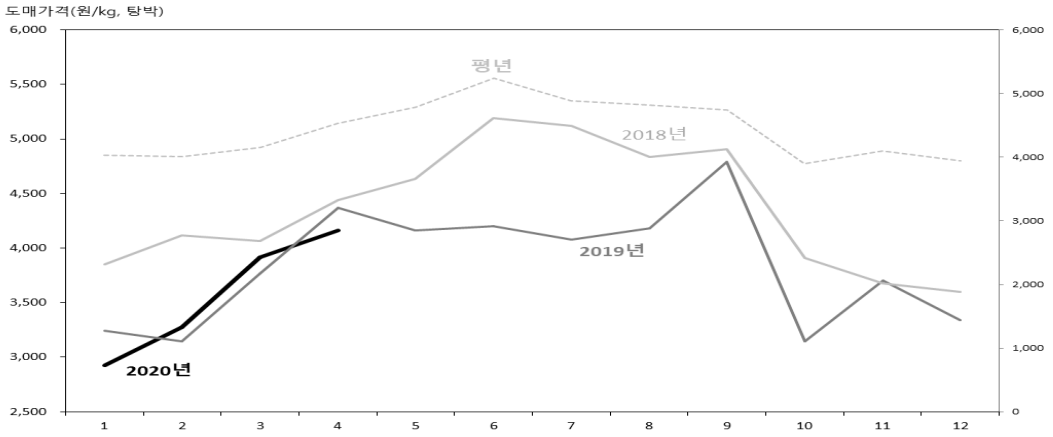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20년 1/4분기 동향
  - 2020년 3월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0.5% 40만 9천 마리였음.
  - 2020년 1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한 53만 톤임.

- 2020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6월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40만 1천~40만 3천 마리로 전망됨.
  - 2/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0.9~1.2% 증가한 53만 5천~53만 7천 톤으로 전망됨.

6.3. 돼지

돼지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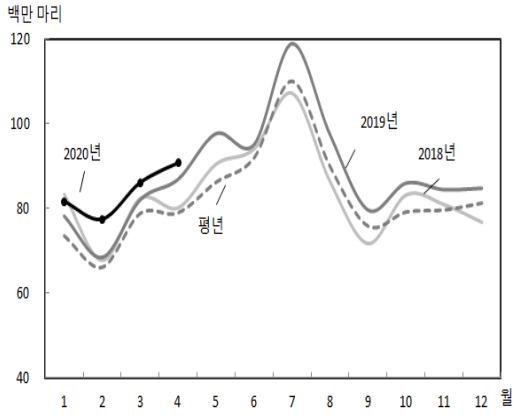
- 1/4분기 동향
  - 2020년 3월 1일 기준, 돼지 사육 마릿수는 비육돈 마릿수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0.1% 증가한 1,121만 마리임(통계청).

- 1/4분기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가 늘어 전년 동기간(487만 마리)보다 증가한 474만 마리였음.
- 1/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가 많아 전년 동기간(3,384원/kg)보다 하락한 3,371원이었음.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2/4분기 도축 마릿수는 출하 예정 마릿수가 많아 전년보다 4.2% 증가한 443만 마리로 전망됨.
- 돼지고기 수입량은 중국의 수입량 증가로 인한 국제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보다 감소한 9만 8천 톤으로 전망됨.
- 2/4분기 도매가격은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하나, 가정 내 소비 늘어 전년 동기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4월 4,286원, 5월 4,800~5,000원, 6월 4,700~4,9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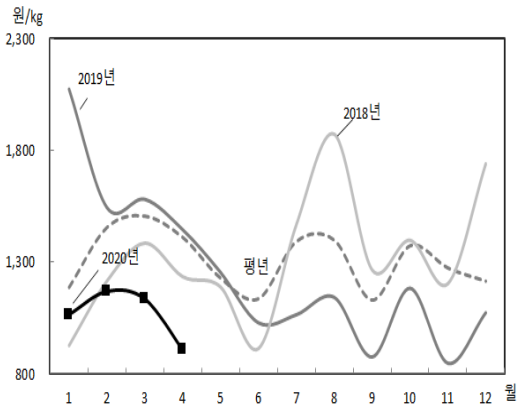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육계 산지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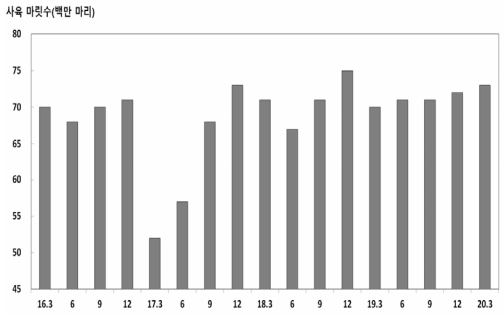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생계유통가격)

- 1/4분기 동향
  - 1분기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2019년 종계 병아리 입식 증가로 전년보다 3.1% 증가한 481만 마리로 추정됨.
  - 1분기 도계 마릿수는 종계 사육 증가 및 생산성 향상으로 병아리 생산이 늘어 전년 동 분기 대비 7.3% 증가한 2억 4천 5백만 마리였음.
  - 1분기 평균 육계 산지 가격은 병아리 생산 증가로 도계가 늘어 전년 동기 대비 35.2% 하락한 1,123원/kg임.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분기 병아리 생산량은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병아리 생산 증가가 예상되어 2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1.9% 많은 수준인 2억 8천 5백만 마리로 예상됨.
  - 4월 육계 산지 가격은 도계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38.2% 하락한 893원/kg이었으며, 병아리 품질 저하에 따른 증체 지연으로 대닭 부족 현상이 나타났던 작년 동월에 비해 가격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남. 5~6월 육계 산지 가격도 도계 증가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5~6월: 900~1,10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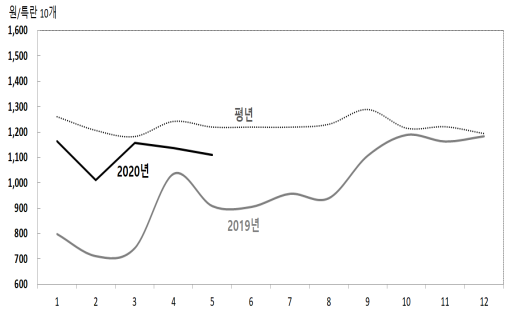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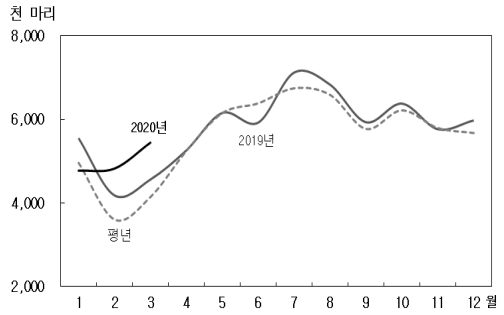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 1/4분기 동향
  - 3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병아리 입식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한 7,281만 마리이며,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도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5,384만 마리임.
  - 1분기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는 전년(1,225만 마리)보다 감소하였으나 평년(950만 마리)보다 많은 998만 마리였음.
  - 1~3월 계란 평균 산지 가격은 계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가정 내 소비 증가로 전년보다 높은 1,111원(특란 10개, 축산물품질평가원)이었음.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6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4월 산란 노계 도태(351만 마리)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사육 마릿수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5~6월 계란 산지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전망
    (4월: 1,136원/특란 10개, 5월: 1,050~1,200원, 6월: 1,000~1,1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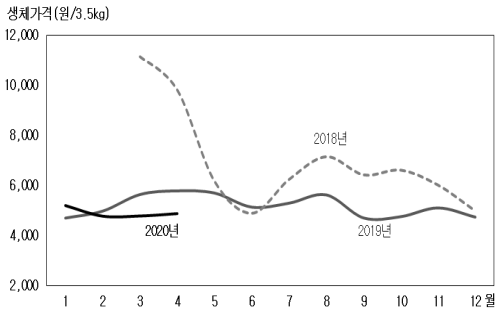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압 마릿수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가격 동향



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 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평년 자료는 없음.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1/4분기 동향
  - 3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818만 7천 마리임. 육용 오리는 전년보다 15.7% 증가한 744만 8천 마리였으나, 종오리는 전년보다 8.2% 감소한 74만 마리임.
  - 육용 병아리 입식 증가로 1/4분기 도압 마릿수는 전년보다 5.3% 증가한 1,504만 3천 마리임. 도압 마릿수와 냉동재고량 증가로 총공급량이 늘어 1/4분기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3.7% 하락한 4,913원/3.5kg임.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6월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은 육용 병아리 입식 증가로 도압 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5~6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5,100~5,600원/3.5kg으로 전망됨.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8)]

1. 조사 개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식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도시 가구의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대상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 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면적	1~100㎡ 이하	235	71.2
	101~300㎡ 이하	65	19.7
	300㎡ 초과	30	9.1
직원 수	1~3명 이하	254	77.0
	4~5명 이하	36	10.9
	6명 이상	40	12.1

8)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재휘(raccoon_kjh@krei.re.kr) 연구원이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등의 순임. 규모별 응답자는 100㎡ 이하인 업소가 71.2%로 가장 많고, 101~300㎡ 이하 19.7%, 300㎡ 초과 9.1% 순임.
  - 사업유형별 응답자는 대부분 단독개인 점포이며, 직원 수는 3명 이하가 77.0%로 가장 많음.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2.1. 경기 현황 조사

- 2020년 1/4분기 음식업 경기 동향은 1.90(5점 척도)으로 전년 동기(2.68)와 전 분기(2.73)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함.

음식업 경기 동향(5점 척도 기준)

2019년 1/4분기	2019년 4/4분기	2020년 1/4분기
2.68	2.73	**1.90**

주: 음식업 경기 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 2020년 2~3월(코로나 19 확산 후) 음식점 매출은 2019년 2~3월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71.3으로 나타나 코로나 19 확산 후 매출이 29% 수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2020년 2/4분기 음식점 예상 매출은 2020년 1/4분기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83.5로 나타나 전분기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2. 곡류

- 2020년 1/4분기 쌀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19.7% 감소하였고, 전 분기보다 21.4% 감소함.
  - 감자 1/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12.4% 감소하였고, 전 분기보다 19.2% 감소함.

곡류 품목별 1/4분기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19.7	-21.4	-12.4	-19.2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 2020년 2/4분기 쌀과 감자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2/4분기)에 비해 각각 18.6%,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곡류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18.6	-13.1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 패널(330업체) 조사 결과

2.3. 채소류

- 2020년 1/4분기 엽근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0% 감소하였고, 양념 채소류는 25.8% 감소함.

– 엽근과 양념 채소류의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 소계는 큰 차이가 없지만, 건고추의 경우 54.8%가 감소하여 양념 채소류뿐만 아니라 엽근채소류와 비교해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채소류 품목별 1/4분기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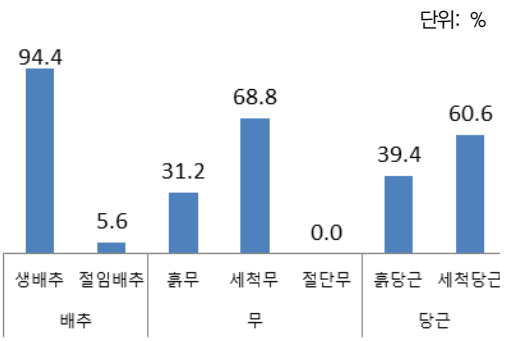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23.6	건고추	-54.8
배추김치	-15.8	고춧가루	-13.3
무	-25.8	마늘	-23.2
당근	-25.9	양파	-16.0
양배추	-19.0	대파	-21.7
소계	-22.0	소계	-25.8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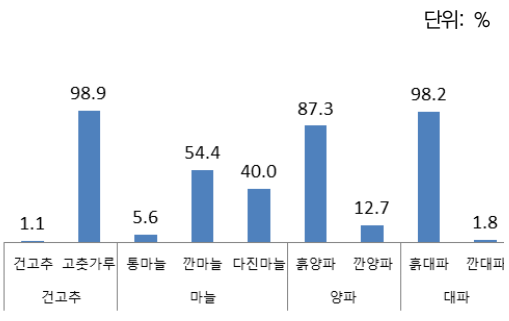
• 음식점업체에서 원물 형태로의 구입을 선호하는 품목은 대파(98.2%), 배추(94.4%), 양파(87.4%)이며, 무, 당근, 건고추, 마늘의 경우 원물 형태보다 세척하거나 분쇄 과정을 거친 1차 가공 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채소류 품목별 구매 형태

〈엽근채소〉



〈양념채소〉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9년 1/4분기		2020년 1/4분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엽근채소	무	99.6	0.4	99.6	0.4
	배추	99.1	0.9	99.1	0.9
	배추김치	14.3	85.7	20.1	79.9
	당근	61.0	39.0	56.3	43.7
	양배추	99.1	0.9	87.9	12.1
양념채소	건고추	61.9	33.3	62.5	37.5
	고춧가루	58.8	41.0	54.8	45.2
	통마늘	85.7	14.3	73.9	26.1
	깐마늘	57.5	42.5	53.9	46.1
	다진마늘	57.9	42.1	60.4	39.6
	흙양파	88.9	11.1	90.6	9.4
	깐양파	43.8	56.2	38.9	61.1
	대파	99.4	0.6	99.7	0.3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 2020년 1/4분기 채소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김치와 깐양파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79.9%), 깐양파(61.1%), 깐마늘(46.1%), 고춧가루(45.2%), 당근(43.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무, 배추, 대파, 흙양파는 전체 구매의 90% 이상이 국내산으로 다른 채소류에 비해 국산 구매율이 월등히 높음.
  - 배추김치, 다진마늘, 흙양파, 대파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국내산의 비중이 증가함.
- 배추는 대부분 배추김치(완제품) 형태로 수입이 이뤄지는데, 2020년 1/4분기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비율은 36.8%이고, 완제품을 구입하는 비율은 63.2%로 조사되었음.

- 국내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중국산 김치(배추)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은 29.9%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현재 중국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 국내산 김치(배추)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30.9%로 조사되었음.

• 중국산 김치 소비량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 발생 전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56.1%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비슷(43.3%)', '증가(0.6%)'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중국산 김치 소비량이 감소한 이유로는 '고객 감소(84.8%)'가 가장 높았음.
- 중국산 김치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방법으로는 '안 함(90.2%)'이 가장 높았음.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한 중국산 김치 소비량

단위: %

(코로나 19 발생 전보다) 증가	비슷	(코로나 19 발생 전보다) 감소
0.6	43.3	56.1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중국산 김치 소비량이 감소한 이유

단위: %

고객 감소	중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단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84.8	7.6	7.6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중국산 김치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방법

단위: %

안 함	깍두기, 파김치 등 타 김치 제공	단무지 제공	국내산 배추김치 (겉절이 포함) 제공
90.2	4.3	4.3	1.1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 2020년 2/4분기 엽근과 양념 채소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2/4분기)에 비해 각각 21.1%, 2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엽근과 양념 채소류의 전년 동기 대비 2/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 증감률 소계는 큰 차이가 없지만 건고추의 경우 54.8% 감소하여 다른 품목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됨.

채소류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24.2	건고추	-54.8
배추김치	-14.4	고춧가루	-11.8
무	-25.5	마늘	-21.7
당근	-23.0	양파	-15.2
양배추	-18.2	대파	-20.8
소계	-21.1	소계	-24.9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2.4. 과채류

- 2020년 1/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0% 감소함.
  - 풋고추와 오이, 애호박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2.8%, 14.9%, 13.2% 감소하였음.

과채류 품목별 1/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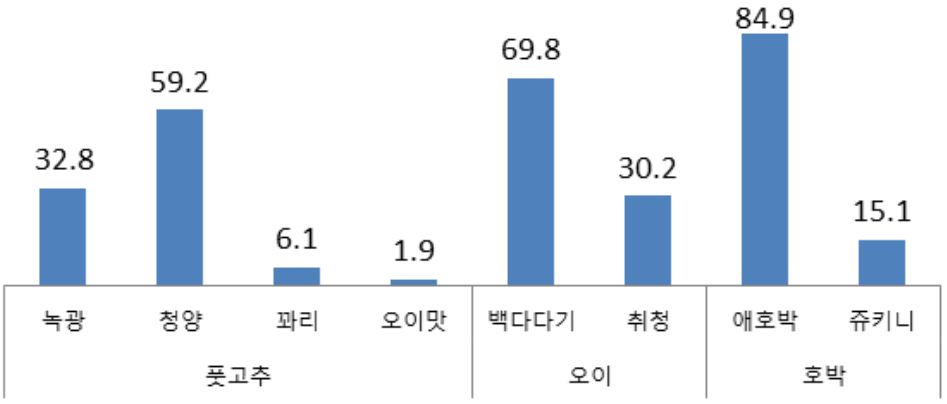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22.8	-14.9	-13.2	-17.0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 음식업체에서 주로 구입하는 풋고추 품종은 청양계 풋고추가 5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녹광) 풋고추(32.8%), 꽈리고추(6.1%), 오이맛고추(1.9%) 순으로 조사됨.
  - 오이는 취청오이(30.2%)보다는 백다다기오이(69.8%)를, 호박은 쥬키니 품종(15.1%)보다는 애호박(84.9%)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과채류 품목별 구입품종

단위: %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 2020년 2/4분기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2/4분기) 대비 15.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풋고추, 애호박의 2/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0.3%, 1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오이의 경우 1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과채류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20.3	-12.0	-12.8	-15.0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2.5. 축산류

- 2020년 1/4분기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함.
  - 오리고기,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67.4%, 19.0%, 18.1%, 17.8% 감소하였고 닭고기는 1.0% 증가함.

축산물 품목별 1/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18.1	-17.8	1.0	-67.4	-19.0	-24.3

주: 소계는 각 품목별 가중치를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9년 1/4분기					2020년 1/4분기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11.5	70.6	17.8			8.7	74.8	16.5		
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기타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기타
	71.5	7.9	6.3	11.2	3.1	72.2	6.8	6.6	10.9	3.48
닭고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기타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기타	
	83.6	8.0	7.4	1.0		83.7	7.7	7.5	1.1	
오리고기	국내산	프랑스산				국내산	프랑스산			
	96.9	3.1				100.0	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 2020년 1/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국내산 구매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는 호주산 비중이 74.8%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호주산은 4.2%p 증가한 반면, 미국산 구입 비중은 1.3%p 감소함.
  - 돼지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72.2%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캐나다산은 0.3%p 증가하였고, 미국산은 1.1%p, 칠레산은 0.3%p 감소함.
  -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각각 83.7%, 100.0%로 다른 축종에 비해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 2020년 2/4분기 주요 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2/4분기)에 비해 2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오리고기, 쇠고기, 돼지고기의 2/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67.8%, 19.2%, 18.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닭고기의 경우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축산물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19.2	-18.1	1.5	-67.8	-17.7	-24.3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2.6. 기타

- 2020년 1/4분기 식재를 전 처리된 형태로 구입하는 이유로 '주방 내 조리 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44.0%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20.8%)',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20.5%)',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식재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8.3%)',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여(6.2%)', '단가가 저렴해서(0.2%)' 순으로 나타남.

전처리 식재의 구입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주방 내 조리 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44.0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	20.8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	20.5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8.3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여	6.2
단가가 저렴해서	0.2
소계	100.0

주: 해당 조사의 대상으로 감자, 무, 배추,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 2020년 1/4분기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으로 '가격등락이 심함'이 31.2%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19.1%)', '적절한 가격정보를 얻기 곤란함(17.0%)',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16.4%)',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4.2%)' 순으로 나타남.

농산물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

단위: %

항목	비중
가격등락이 심함	31.2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	19.1
적절한 가격정보를 얻기 곤란함	17.0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	16.4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	14.2
소계	97.9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 후식 과일의 경우, 응답자의 8.2%만이 후식 과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공되는 후식 과일은 오렌지가 4.5% 가장 높았음.
  - 후식 과일 제공 시, 수입산 과일을 선호하는 이유로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가 30.8%로 가장 높았음.

후식 과일 비율

단위: %

항목	비중	항목	비중
오렌지	4.5	파인애플	1.2
사과	4.2	바나나	0.6
배	3.3	방울토마토	0.6

주: '제공하지 않음'의 비율은 93.0%이며, 각 항목에 대한 중복응답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수입산 과일 선호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수입산이 더 저렴함)	30.8
국내산의 맛/품질/규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23.1
국내산과 선호도 차이가 없어서	23.1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어서(생산되지 않는 계절이어서)	15.4
손님들이 선호해서	7.7
소계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 코로나 19 확산 후(2020년 2~3월)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2~3월)보다 약 25%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동기 월평균 구매량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코로나 19 확산 후 쌀, 채소 및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76.9, 축산물 월평균 구매량은 73.8로 나타남.

- 코로나 19 확산 후 식자재의 조달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아니요' 응답이 95.8%로 '예(4.2%)'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2.7 요약 및 시사점

- 2020년 1/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2019년 1/4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품목별로 살펴보면, 엽근, 양념 채소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2.0%, 25.8% 감소하고, 과채류와 축산류는 각각 17.0%, 24.3% 감소함.

- 코로나 19 확산 후(2020년 2~3월)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2~3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19 확산 후 식자재 조달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채소류의 원산지별 구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 깐양파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 깐양파, 깐마늘, 당근, 다진마늘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중국산 김치 소비량은 감소했다는 의견이 56.1%로 가장 높았고, 그 이유로는 고객 감소가 84.8%로 가장 높았으며, 90.2%가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됨.

- 축산물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은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에서 국내산의 구입 비중이 70% 이상이며, 쇠고기의 국내산 비중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함.

- 농산물을 전 처리된 식자재로 구입하는 이유는 주방 내 조리 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44.0%)하기 위해서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자재 취급(20.8%), 인력 부족(20.5%), 재고관리 철저(8.3%) 순으로 나타남.
  - 식자재 구입 시 문제점에 대해 응답 업체의 31.2%가 농산물의 가격등락이 심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 하락(19.1%), 적절한 가격정보를 얻기 곤란함(17.0%),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

함(16.4%),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4.2%) 순으로 조사됨.

- 후식 과일을 제공한다는 음식점업체는 8.2%로 적으며, 제공하는 후식 과일로는 오렌지, 사과, 배, 파인애플, 바나나, 방울토마토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2/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의 예상 구매량은 2019년 2/4분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특별주제

❶ 코로나 19 확산과 국제 곡물 시장 영향

❷ 코로나 19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형태 변화

코로나 19 확산과 국제 곡물 시장 영향[1)]

박성진*, 박지원, 강두현, 안정욱

1. 코로나 19[2)] 발생

- 2019년 12월 코로나 19가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아시아를 거쳐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후 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3월 이후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0일 코로나 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함. 이후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 등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WHO 사무총장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는 3월 11일 코로나 19에 대해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으로 공식 선언함.

- 2020년 5월 4일 기준, 전 세계 218개 국가에서 345만 명의 코로나 19 확진자와 24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대륙별로 살펴보면, 유럽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150만 명과 14만 명, 아메리카는 146만 명과 8만 명, 아시아는 23만 명과 9천 명 수준임.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187호, "코로나 19 확산과 국제 곡물 시장 영향 및 전망"(2020.04.21.)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seongjin20@krei.re.kr)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에 대한 병명을 본문에서는 코로나 19로 통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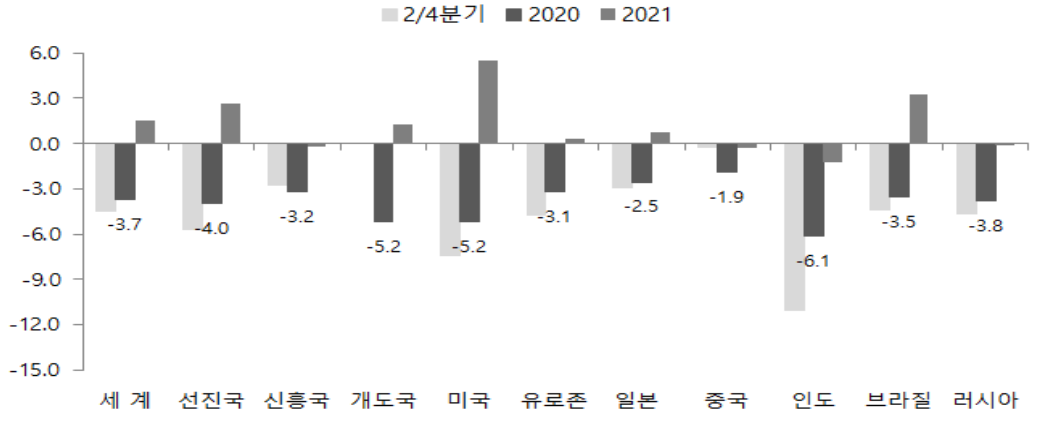
2. 국제 곡물 시장 영향

2.1 거시 경제지표 동향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역폐쇄조치나 대면 거래 금지 등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됨.
  - IHS Global Insight는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4월 15일 발표)을 3월 전망치 대비 3.7%p 하락한 -3.0%로 하향 조정함.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전월 전망치 대비 각각 4.0%p와 3.2%p 하락한 -4.5%와 -0.6%로 전망함.
  - 미국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위축과 실업률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월 전망치 대비 5.2%p 하락한 -5.4%, 유로존은 3.1%p 하락한 -4.6%로 전망함.
  - 중국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비 부진과 투자·수출 위축 영향으로 전월 전망치 대비 1.9%p 하락한 2.0%, 인도는 국가 봉쇄조치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제조업 위축으로 6.1%p 하락한 -1.0%로 전망함.

국가별 GDP 성장률 전망 변화

단위: %p(전월 전망치 대비)



주: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당해연도 GDP 증감률을 의미함. 선진국은 미국, 일본, 한국 등 32개 국가, 신흥국은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러시아, 베트남 등 54개 국가, 개도국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120개 국가임.
자료: IHS Global Insight(2020.04.15.)

- 달러화 가치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세계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유로화, 엔화 등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임.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하 및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의 경제적 충격이 고용 지표로 나타나고, 급격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급증함.
  - 3월 중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 달러화 수요 급증으로 1,28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3월 하순 미국의 2조 원 규모 경기부양책의 의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과 600억 달러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1,240원 수준으로 하락함. 4월 평균 대미환율은 달러당 1,225원으로 전월 대비 0.4% 상승함.

- 국제유가는 공급과잉 현상 및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하락세를 지속함.
  - 4월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재고 증가,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석유 수요 전망 하향 조정, 4월 12일 OPEC+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 폭 상쇄 부족 우려 등으로 저유가 추세가 유지됨. 서부텍사스유(WTI)는 전월 대비 45.2% 하락한 배럴당 17달러,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는 각각 21.0%와 39.5% 하락한 27달러와 20달러로 나타남.
  - WTI의 경우, 원유 공급과잉 심화로 인한 선물계약 투자자들의 매도세 급등으로 4월 20일 기준 전일 대비 306% 감소한 배럴 당 -38달러를 기록하기도 함.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0년 2/4분기에도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어 WTI는 전 분기 대비 56.4% 하락한 배럴당 20달러, 브렌트유는 55.3% 하락한 23달러로 전망함.

2.2 해운 시황

- 유가 하락 등의 해상운임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운송 차질 문제 발생으로 해상물류 여건이 위축됨.
  - 영국 해운 조사기관인 클락슨(Clarksons)은 올해 연간 해상 물동량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억 톤(5.1%) 이상 감소한 111억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최근 35년 중 최대 수준의 감소 폭을 나타냄.[3)]
  - 컨테이너선은 주로 유럽-중국과 미국-중국을 왕복하는 항로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3월 상순까지 중국의 물류 장애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입 항구에서의 계류, 적체 현상이 나타나 운송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중국 내 코로나 19 확산세 억제 및 재발 통제에 성공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3월부터 공장 재가동 및 근로자 복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수출입 화물의 감염 문제 등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시아-유럽 항로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의 감선·감편(Blank Sailing)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코로나 19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0.3~0.4%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곡물 운송에 이용되는 건화물선 수요는 지속되고 있어 시황을 지지하고 있음.
  - 건화물선의 경우, 중국의 철광석 등 원자재 수요 감소로 케이프선 수요가 줄어들어 운임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케이프 선에 비해 파나막스선은 수요 둔화 및 운임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주간해운시장포커스 473호(2020.04.27.)

- 덴마크 곡물 컨설턴트사(BullPositions)는 일부 항만에서 중소형 건화물선의 입항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유의미한 물동량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함. 또한, 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브라질산 콩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수입량도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 코로나 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생활필수품으로서 곡물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중소형 건화물선 시황을 지지하고 있음. 그러나 확산세가 지속되어 농산물 교역이 위축된다면 건화물 시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2.3 국제 곡물 수급 및 선물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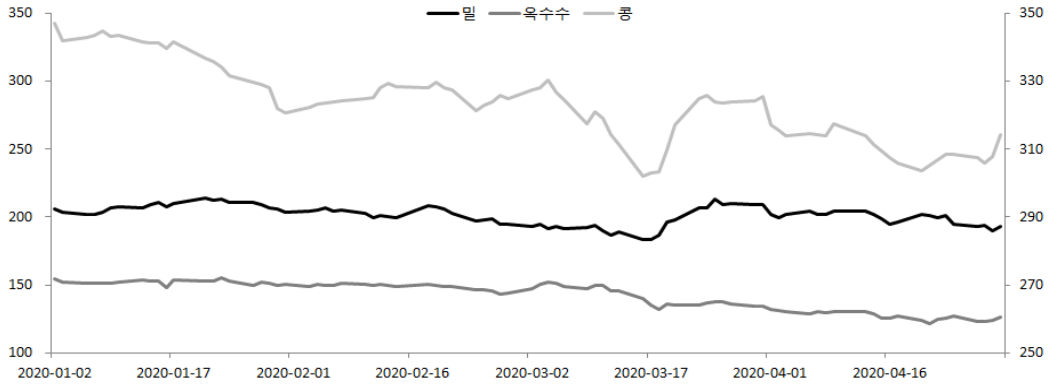
- 국제 곡물 수급[4]은 양호한 공급 여건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 곡물 기말재고율은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한 2008년에는 19.0%에 불과했으나 2010년 이후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의 작황 호조 지속으로 2018년에는 33.2%까지 상승함.
  - 2019/20년산 품목별 기말재고율은 밀 40.4%, 옥수수 27.5%, 콩 30.3%, 쌀 33.0%로 수급 여건은 양호한 수준임.
  - 국제 곡물 수급은 코로나 19의 영향보다 기상 여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됨. 2019/20년산 품목별 생산량은 밀이 전년 대비 4.6% 증가, 콩과 옥수수, 쌀은 각각 5.4%, 1.1%, 0.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의 기상 이슈에 기인한 것이며,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됨.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곡물 5월호(2020.04.29.) 발표 수치 기준임.

- 코로나 19 확산으로 곡물 선물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4월 평균 밀 선물가격은 전월 대비 1.1% 상승한 톤당 199달러로 나타남. 3월 하순부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밀 관련 제품(빵, 파스타 등)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면서 4월 상순까지 선물가격은 상승세로 나타냈음. 그러나 최근 미국의 양호한 밀 작황 상황과 유가 하락 등으로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월 대비 10.3% 하락한 127달러였음.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유가 급락에 따른 미국 내 바이오에탄올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콩 선물가격은 전월 대비 2.8% 하락한 311달러였음.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소비 감소로 인한 주정박(DDGS) 공급 부족으로 대두박 대체 수요 증가, 남미에서의 콩 선적지연 우려 등으로 3월 하순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4월 들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출량 감소와 미국 육류 관련 시설 폐쇄로 인한 가축 사료 수요 감소 우려로 전월 대비 하락함.

밀, 옥수수, 콩, 선물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주: 밀과 옥수수 좌축, 콩은 우축 기준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2.4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 현황

-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에서 정부 차원의 곡물 재고비축분 확대와 곡물 및 식품 수출 제한을 추진함.
  - 브라질은 곡물 주산지의 이동 제한(Lock down)으로 곡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나, 주요 항구에서의 선적 작업은 원활한 상태임.
  - 아르헨티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3월 20일 국경 폐쇄를 결정하였고, 이 조치는 4월 중순까지 연장되었음.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출 관련 업무 종사자를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일부 항구 도시 지자체에서는 화물 트럭 운전기사와 화물을 통한 감염 우려로 정부의 조치를 거부함.
  - 인도는 3월 25일, 3주간의 전국 이동 중지(봉쇄) 발령을 통해 신규 수출계약 및 쌀 출하를 중단함. 4월 14일 모디 총리는 전국 봉쇄조치를 5월 3일까지 연장함.
  - 베트남은 3월 25일 쌀 신규 수출계약 중단 및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4월 10일 쌀 수출 쿼터 40만 톤에 대한 선입선출 방식의 관리 원칙을 공지함. 그러나 4월 12일 기준 신고물량으로 쿼터 물량을 모두 소진함에 따라 22일 쿼터 물량을 50만 톤까지 확대함. 4월 28일에는 수출 쿼터를 철회하고 5월부터 쌀 수출을 완전히 재개한다고 발표함.
  - 미얀마는 4월 1일 국내 공급 우려로 신규 쌀 수출 라이센스 발급을 중단하였으며, 캄보디아는 4월 5일 쌀 수출 금지를 결정함.
  - 말레이시아는 팜유와 팜박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사바주에 4월 중순까지 팜유와 팜박 생산 중단 조치를 단행하였음. 단, 코로나 19 감염 증상이 없는 농장과 공장의 경우 생산 재개를 허용함.
  - 우크라이나 제분 및 제빵업체들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내 빵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곡물 및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도록 정부에 요청하였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밀 수출 물량을 2,020만 톤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함.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옥수수 수출량 제한도 검토 중임.

- 러시아는 4월부터 6월까지 밀, 옥수수, 보리, 귀리 등의 곡물 수출을 700만 톤 이내로 제한하는 수출 쿼터 시행과 국내 제분 및 제빵업체에 밀 공급 확대를 위하여 곡물 비축량의 최대 83%를 국내 시장에 판매하기로 결정함. 또한, 수출 쿼터 소진 시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발표함. 4월 26일 기준 쿼터 물량이 소진되어 신곡이 출하되는 7월 1일까지 수출이 중단됨.
-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들은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3국에 대해 쌀, 호밀, 밀가루, 수수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인도적 차원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출을 허용하기로 함.
- 루마니아는 4월 10일부터 곡물 및 식품류 일부를 Non-EU 국가에 한정하는 수출 중단을 결정하였으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수출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여 중단 조치가 실현되지 않음.
- 카자흐스탄은 3월 22일 식품 수출을 금지하였으나, 4월 3일 밀 20만 톤과 밀가루 7만 톤 수출 쿼터를 도입함. 4월 24일에는 5월부터 수출 쿼터를 밀 25만 톤, 밀가루 15만 톤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고, 국내 수급 여건에 따라 6월에 수출 쿼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3. 국내 영향

3.1 주요 곡물 수입 동향

- 우리나라는 식용 밀과 콩, 사료용 옥수수와 대두박 수입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용 옥수수와 사료용 밀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다변화되어 있음.
  - 2019년 식용 곡물 수입량은 600만 4천 톤으로 전년 대비 1.8%, 사료용 곡물 수입량은 1,204만 톤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함.

- 2019년 기준 식용 곡물의 주요 수입국을 살펴보면, 밀은 미국(47.3%)과 호주(43.8%)에서 수입되며, 일부는 캐나다산(8.7%)이 반입됨. 채유용 콩은 미국(87.9%)과 브라질(12.1%), 식용 콩은 미국(85.0%)에서 대부분 수입되어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옥수수는 세르비아(32.7%)와 미국(29.6%)에서의 수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브라질(19.0%)과 불가리아(13.8%)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 사료용 곡물의 주요 수입국을 살펴보면, 옥수수는 브라질(36.3%), 아르헨티나(32.9%), 미국(22.4%) 등 특정 국가에서 대부분 수입되었고, 대두박은 주로 브라질(87.5%)에서 수입되었으며, 밀은 상대적으로 수입단가가 낮은 우크라이나(50.6%)에서의 수입 비중이 높았음.

식용 및 사료용 곡물 수입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밀		옥수수		콩			전체	
	식용	사료용	식용	사료용	식용	채유용	(대두박)	식용	사료용
2017	2,390	1,763	2,303	7,007	209	1,034	1,705	5,936	10,475
2018	2,331	1,462	2,364	7,791	201	1,002	1,867	5,898	11,120
2019	2,405	1,193	2,373	8,974	246	980	1,873	6,004	12,040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3.2 주요 곡물 국내비축 현황[5)]

- 4월 기준, 국내 식용 및 사료용 곡물 실수요업계는 3/4분기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임.
  - 곡물 재고 보유량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창고와 항만 보유량, 해상 운송 중인 물량을 포함하여 1~3개월 사용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5) 국내 식용 및 사료용 곡물 실수요업체의 구매 담당자 인터뷰 결과임.

됨. 업계(수입 곡물 실수요업체)에서는 8~9월 국내 도착분에 대한 매입계약을 완료하였고, 업체에 따라 이후 도착분까지 계약을 완료한 경우도 존재함. 쌀의 경우 정부 비축(약 110만 톤)과 민간 비축 물량 등을 고려할 경우, 수확기까지 사용 가능함.

- 사료용 곡물(밀, 옥수수, 대두박)의 대부분은 사료협회와 농협사료를 통해 도입됨. 해상운송 중인 물량을 포함하여 창고와 항만 등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3개월 사용분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사료협회와 농협은 9월 국내 도착분까지 매입계약을 완료한 상태임.

• 우리나라는 쌀과 콩을 제외한 여타 곡물의 경우 정부 비축 물량이 미미하고, 민간의 의무비축제도는 없는 상황임.

- 공공비축제도는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정부가 일정 물량의 곡물을 비축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63년 8월에 제정된 「양곡관리법」을 근거로 비축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비축대상 곡물은 쌀을 포함한 미곡, 맥류(보리, 참밀, 귀리, 호밀), 두류와 옥수수 등이나 현재는 쌀과 두류(콩)만 정부 비축을 하고 있음.
- 식품과 배합사료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밀, 옥수수, 콩 등은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보관 비용 및 제반 설비 등의 문제로 정부 비축은 미미한 수준이며, 민간의 주요 곡물 비축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없는 상황임.
- 국내에서 소비량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석유)의 경우 1992년부터 '민간의무비축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중임. 민간비축 의무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판매업자로 최소 27일에서 최대 40일분의 의무비축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 의무비축물량은 각 업체에서의 운영재고량과 구분되는 별도의 물량임.

3.3 국내 영향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 불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남미 등 우리나라가 주로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에서의 항구봉쇄 조치는 없는 상황이므로 국내 곡물 도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일부 밀과 옥수수 도입물량의 경우 수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출 차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식용 및 사료용 곡물은 3/4분기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구매 및 비축하고 있으며, 사료용 부원료의 경우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품목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 수급 불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3월 기준 대두박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단가가 전월 대비 상승하였고, 4월에도 강세를 지속하고 있어 이후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식용 곡물의 경우, 밀은 전월 대비 1.6%, 옥수수는 3.4% 상승한 톤당 276달러와 220달러로 나타남. 사료용 곡물의 경우, 옥수수는 전월 대비 2.0%, 대두박은 0.1% 상승한 210달러와 367달러로 나타남.

식용 및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동향

단위: 달러/톤

구분		1월	2월	3월(A)	4월(B)	증감률(A/B)
식용	밀	262	265	272	276	1.6%
	옥수수	218	212	212	220	3.4%
	식용 콩	648	560	617	568	-7.8%
	채유용 콩	405	409	412	406	-1.4%
사료용	밀	214	219	225	217	-3.2%
	옥수수	201	203	206	210	2.0%
	대두박	378	376	367	367	0.1%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우리나라는 대체로 파나막스선급 등 건화물선을 이용하여 곡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컨테이너선 대비 건화물선의 운송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곡물 도입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사료원료 중 일부는 컨테이너선을 이용하여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컨테이너선의 물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수출항에서의 선적지연 문제가 발생함. 그러나 컨테이너선을 통해 도입되는 부원료는 전체 사료원료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요 곡물 수출국에서의 수출 제한 조치 확산과 항구봉쇄 단행 시 유의미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임.
  - 미국 등에서 코로나 19 확산세가 커지면서 항구봉쇄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수입 곡물의 도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됨. 국내 재고 보유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구봉쇄로 인한 선적지연 및 계약 취소 등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국내 사용 가능 물량이 소진됨.
  - 항구봉쇄 조치가 없다면 해상운송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으나, 선적지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대체로 곡물 산지에서 수출 항구까지 육로나 강을 따라 바지선을 이용하여 곡물이 이동되는데, 중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근무 인력 부족이나 물류업의 조업 중단이 발생한다면 선적지연으로 이어지게 됨.
  - 수입선 대체도 어려운 실정임. 통상 국내 도착 기준 4~6개월 전 선 구매계약을 체결함. 봉쇄조치를 염두에 두고 기계약을 파기하거나 다른 구매계약을 체결하기에는 업계 자금 융통 여건상 불가능하고, 봉쇄조치 직후 다른 국가를 통한 구매계약 및 선적이 즉시 이루어지더라도 해상운송에만 40일 전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대안이 마땅하지 않은 실정임.

4. 요약 및 시사점

- 코로나 19로 인한 부정적 거시경제 지표, 해상물류 차질 등에도 국제 곡물 수급 여건은 양호한 수준이며, 선물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임.

- 일부 국가에서 정부 차원의 곡물 재고비축분 확대와 주요 곡물의 한시적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시행함.
  -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수출 금지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기존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던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등은 수출 금지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하고 있음.
  - 러시아를 포함한 EAEU 회원국들은 쌀, 호밀, 밀가루, 수수 등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수출 쿼터제 등을 활용하여 일부 곡물을 수출하고 있음.

- 주요 곡물 수출국의 경우 생산 및 수출입 업무 종사자를 예외 인력으로 규정하여 곡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음.
  - 미국은 수출터미널을 필수 운송 및 물류 시설로 간주하고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3월 19일 휴스턴 지역의 Bayport와 Barbours Cut 항구 터미널이 선원 감염으로 일시 폐쇄되었으나 현재는 가동을 재개했음.
  - 아르헨티나는 수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브라질은 곡물 주산지의 이동 제한으로 곡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나, 주요 항구에서 선적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4월 중순까지 사바주에서 팜유와 팜박 생산 중단을 조치하였으나, 코로나 19 감염 증상이 없는 농장과 공장의 경우 생산 재개를 허용함.

- 국제 곡물의 단기적 수급 불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확산과 항구봉쇄 시 유의미한 대응책이 미흡한 실정임.
  - 국제 곡물 공급 여건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입 곡물 실수요업계는 3/4분기 국내 도착분에 대한 계약을 이미 완료하였기 때

문에 단기적인 수급 불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저유가 지속에 따른 해상운임 약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확산 이후 대미 환율 강세가 지속되면서 곡물의 수입단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식품 및 배합사료 물가 상승 압력이 전망됨.
- 장기적으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확산과 항구 봉쇄조치 발령 시에는 유의미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며, 다른 국가를 통한 구매계약 및 선적이 즉시 이루어지더라도 해상운송이 상당 시일이 소요됨.

- 비축설비 확충, 국가 필수 선박 제도 활용 등을 통한 곡물 수급 위기 대응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은 해상운송 등의 물류 차질이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물류 장애로 인한 수급 불안이 예상될 경우 '국가 필수 선박 제도'[6]를 활용하여 주요 곡물의 조기 선적 또는 조기 도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는 쌀과 콩에 한해 국가비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여타 곡물의 비축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며, 민간에서는 보관 비용과 제반 설비 등의 문제로 운영재고량 정도를 비축하고 있는 실정임. 에너지 분야(석유)의 '민간 의무비축제도'와 같이 해운물류 장애나 기타 비상사태로 인한 일시적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곡물 부문의 의무비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운물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곡물 운반이 가능한 국가 필수 선박으로 지정된 일반화물선은 29척임. 국가 필수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제한되고 이 제한 조치에 따른 임금 부담은 정부가 보상하며,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코로나 19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행태 변화

서홍석*, 김재휘**

1. 코로나 19[1]의 농축산물 소비 영향 조사 개요

- 농업관측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발생이 농축산물 소비 행태에 미친 영향 조사를 총 4회 실시함.
-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소비행태를 조사함. (1차, 2차 조사)
  - 1차(코로나 19 대구·경북 확산 초기): 2.21.(금) ~ 23.(일), 557명.
  - 2차(확진자 감소세 전환 초기): 3.11.(금) ~ 22.(수), 611명.
- 이전 차수 조사시기와 비교하여 소비행태를 조사함. (3차, 4차 조사)
  - 3차(확진자 감소세 지속): 3.31.(수) ~ 4.2.(목), 623명.
  - 4차(확진자 감소세 지속): 4.20.(월) ~ 22.(수), 617명.

코로나 19의 농축산물 소비 영향 조사

단위 : 명

구분	1차	2차	3차	4차
	2.21. ~ 2.23	3.11 ~ 3.22.	3.31. ~ 4.2.	4.20 ~ 4.22.
응답 수	557	611	623	617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촉연구원(raccoon_kjh@krei.re.kr)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2. 농축산물 소비 행태 변화

2.1 구매·조리 패턴 변화

-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음식점·매장 방문 빈도는 점차 감소하고, 가정조리는 점차 증가함.
  - 음식점 방문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81.8%에서 90.7%로 증가했음. 대부분의 직업군 종사자는 음식점 빈도를 줄였으나, 서비스직과 자영업 종사자는 '줄었음' 응답자 비율이 감소하고 '비슷함' 응답자 비율이 증가함. (서비스직: 81.0% → 77.3%, 자영업: 92.3% → 88.5%)
  -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매장방문 빈도는 '줄었음'의 비율이 66.9%에서 69.7%로 증가했지만,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 강원은 '줄었음'의 비율이 감소함.
  - 코로나 19 발병 이후 가정조리가 늘었다는 응답자는 70.5%에서 81.8%로 증가했음.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200만 원 미만 소득자의 '늘었음'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함. (62.5% → 82.4%)

농축산물 구매와 조리 패턴 변화 (1~2차)

단위 : %

구분	1차			2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음식점 방문	81.8	17.5	0.7	90.7	8.8	0.5
매장방문	66.9	31.4	1.6	69.7	25.3	5.0
가정조리	2.3	27.2	70.5	1.3	16.9	81.8
배달 음식	28.2	51.5	20.4	29.7	40.4	29.9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주: 매장방문은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을 의미

직업에 따른 음식점 방문 패턴 변화 (1~2차)

단위 : %

구분	1차			2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관리/전문직	81.0	19.0	0.0	91.4	8.6	0.0
교육직	100.0	0.0	0.0	100.0	0.0	0.0
사무직	81.2	16.8	2.0	90.1	9.9	0.0
서비스직	81.0	19.0	0.0	77.3	22.7	0.0
시간 근로제	79.3	20.7	0.0	94.1	5.9	0.0
자영업	92.3	7.7	0.0	88.5	11.5	0.0
주부	81.3	18.3	0.3	91.5	7.6	0.9
판매직	66.7	33.3	0.0	70.0	30.0	0.0
기타	71.4	14.3	14.3	100.0	0.0	0.0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지역에 따른 매장방문 패턴 변화 (1~2차)

단위 : %

구분	1차			2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서울	62.5	36.2	1.3	68.4	28.3	3.2
인천	71.7	25.0	3.3	66.7	31.8	1.5
경기	69.1	27.3	3.6	63.3	28.3	8.3
대구/경북	76.4	23.6	0.0	75.9	17.2	6.9
부산/울산/경남	52.0	48.0	0.0	67.7	27.4	4.8
대전/세종/충남/충북	71.8	23.1	5.1	79.1	7.0	14.0
광주/전남/전북	84.2	15.8	0.0	75.0	20.5	4.5
강원	75.0	25.0	0.0	72.2	22.2	5.6
제주	0.0	100.0	0.0	50.0	50.0	0.0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가구소득에 따른 가정조리 패턴 변화 (1~2차)

단위 : %

구분	1차			2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200만 원 미만	0.0	37.5	62.5	0.0	17.6	82.4
200~300만 원 미만	4.8	25.3	69.9	2.4	15.5	82.1
300~400만 원 미만	2.4	26.0	71.5	1.4	15.2	83.3
400~500만 원 미만	0.6	26.9	72.4	0.6	18.0	81.4
500~600만 원 미만	1.0	25.3	73.7	1.8	18.4	79.8
600만 원 이상	6.3	30.2	63.5	1.5	16.4	82.1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 이전 차수 조사시기와 비교했을 때, 음식점·매장 방문 빈도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으로 조사됨.
  - 음식점 방문의 경우 '늘었음'의 비율이 0.6%에서 9.7%로 증가했고, '줄었음'의 비율이 88.2%에서 63.0%로 감소함.
  -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매장방문 빈도는 추세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하 응답자들의 경우 3차 조사에서 '줄었음' 응답자가 65.0%로 연령대 중 가장 많았지만 4차 조사에서는 21.1%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됨.
  - 가정조리의 '늘었음' 응답 비율은 81.2%에서 66.4%로 감소하여 상승세가 더뎌지고 있으며, 배달 음식의 이용 빈도는 대체로 비슷함.

농축산물 구매와 조리 패턴 변화 (3~4차)

단위 : %

구분	3차			4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음식점 방문	88.2	11.1	0.6	63.0	27.4	9.7
매장방문	55.6	36.8	7.6	32.5	47.4	20.2
가정조리	0.5	18.4	81.2	3.2	30.4	66.4
배달 음식	21.2	43.5	35.3	18.3	50.2	31.4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주: 매장방문은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을 의미

연령에 따른 매장방문 패턴 변화 (3~4차)

단위 : %

구분	3차			4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30대 이하	65.0	30.0	5.0	21.1	63.2	15.8
40대	59.1	32.9	8.1	35.9	38.6	25.5
50대	57.1	35.6	7.3	32.4	47.4	20.2
60대 이상	49.4	42.5	8.1	30.3	53.9	15.8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2.2 축산물 외식 빈도 변화

-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축산물의 외식 빈도는 대체로 감소함.
  - 전 품목에서 '늘었음' 응답자 비율이 소폭 증가했지만, '줄었음' 응답자 비율은 더 많이 증가함.
  - 연령별 소고기 외식 빈도의 경우, 전 연령에서 '줄었음'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늘었음'의 비율은 30대 이하 응답자들만 0.2%p 감소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소폭 증가함.
  - 소득별 돼지고기 외식 빈도의 경우, 전 구간에서 '줄었음'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늘었음'의 비율 역시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응답자를 제외하고 비슷한 폭으로 증가함.

축산물 외식 빈도 변화 (1~2차)

단위 : %

구분	1차			2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쇠고기	48.1	47.9	4.0	62.2	31.4	6.4
돼지고기	49.0	47.1	4.0	59.5	26.7	13.7
닭고기	48.4	45.7	5.9	60.4	29.8	9.8
오리고기	56.1	42.3	1.7	67.3	29.2	3.5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연령에 따른 소고기 외식 빈도 변화 (1~2차)

단위 : %

구분	1차			2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30대 이하	60.0	35.0	5.0	76.2	19.0	4.8
40대	48.7	49.6	1.7	66.9	28.1	5.0
50대	48.6	45.8	5.6	57.3	36.2	6.5
60대 이상	44.4	52.4	3.2	64.2	27.7	8.0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소득에 따른 돼지고기 외식 빈도 변화 (1~2차)

단위 : %

구분	1차			2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200만 원 미만	37.9	55.2	6.9	53.3	43.3	3.3
200~300만 원 미만	55.3	42.1	2.6	57.0	29.1	13.9
300~400만 원 미만	49.0	48.0	3.0	59.5	30.6	9.9
400~500만 원 미만	47.0	48.5	4.5	58.0	27.4	14.6
500~600만 원 미만	50.0	44.0	6.0	65.0	17.0	18.0
600만 원 이상	49.1	49.1	1.8	61.0	22.0	16.9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 이전 차수 조사시기와 비교했을 때, 축산물 외식 빈도는 하락세에서 정체기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됨.
  - 전 품목에서 '줄었음'의 응답 비율이 약 14.3%p 감소했고, '비슷함'의 경우 약 12.4%p 증가함.
  - 연령별 소고기 외식 빈도의 경우, 40대 응답자들의 '줄었음'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했지만, '늘었음'의 비율도 가장 많이 감소함.

축산물 외식 빈도 변화 (3~4차)

단위 : %

구분	3차			3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쇠고기	54.9	34.0	11.1	40.8	48.2	11.1
돼지고기	50.4	30.0	19.6	36.2	39.5	24.3
닭고기	52.6	35.3	12.2	37.4	47.6	14.9
오리고기	66.4	29.2	4.4	52.7	42.6	4.8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연령에 따른 소고기 외식 빈도 변화 (3~4차)

단위 : %

구분	3차			4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30대 이하	55.6	33.3	11.1	50.0	33.3	16.7
40대	61.5	25.2	13.3	45.3	46.0	8.7
50대	52.7	38.3	9.1	39.4	49.0	11.6
60대 이상	52.5	34.8	12.8	37.3	50.7	12.0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2.3 오프라인 매장방문 빈도 변화

-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 매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한 횟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함.
  - 코로나 19 대규모 확산 초기에는 오프라인 매장방문에 대해 '줄었음' 응답자 비율이 '늘었음'보다 컸으나, 확진자 감소세 전환 초기에서는 '줄었음'이 전보다는 감소함. 특히 계란 및 유제품은 '늘었음'의 비율이 31.0%로 '줄었음'(26.2%)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 계란 및 유제품 오프라인 매장방문 구매 빈도의 경우, 40대와 60대 이상에서 확진자 감소세로 전환 초기에 '늘었음'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41.9%, 27.4%로 '줄었음'(25.7%, 19.7%)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 계란 및 유제품 오프라인 매장방문 구매 빈도의 경우, 확진자 감소세 전환 시기에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늘었음' 응답자의 비율이 '줄었음'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됨.

오프라인 매장방문 구매 빈도 변화 (1~2차)

단위 : %

구분	1차			2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과일·과채류	42.4	47.7	9.9	40.9	41.1	18.0
채소·과채류	42.6	49.5	7.9	40.4	42.7	16.9
육류	49.2	42.3	8.5	37.2	37.4	25.4
계란 및 유제품	35.6	49.5	14.9	26.2	42.8	31.0
채소(가공품)류	-	-	-	42.1	41.1	16.8
양념 채소류	-	-	-	38.8	45.1	16.1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주: 2월 1차 조사 당시 채소(가공품)류 및 양념 채소류 항목은 조사하지 않음

연령에 따른 계란 및 유제품 오프라인 매장방문 구매 빈도 변화 (1~2차)

단위 : %

구분	1차			2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30대 이하	55.0	35.0	10.0	42.9	33.3	23.8
40대	47.3	45.0	7.8	25.7	32.4	41.9
50대	33.7	50.2	16.1	29.1	42.9	28.0
60대 이상	26.5	53.6	19.9	19.7	52.9	27.4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지역에 따른 계란 및 유제품 오프라인 매장방문 구매 빈도 변화 (1~2차)

단위 : %

구분	1차			2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서울	34.2	48.3	17.5	28.6	38.7	32.7
인천	36.1	49.2	14.8	13.6	56.1	30.3
경기	38.9	50.0	11.1	31.7	43.3	25.0
대구/경북	35.1	45.6	19.3	28.3	35.0	36.7
부산/울산/경남	32.7	53.8	13.5	21.0	54.8	24.2
대전/세종/충남/충북	37.8	54.1	8.1	27.9	41.9	30.2
광주/전남/전북	37.8	48.6	13.5	26.7	40.0	33.3
강원	43.8	56.3	0.0	23.5	41.2	35.3
제주	50.0	50.0	0.0	50.0	50.0	0.0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 4월 초와 4월 말에 이전 차수 조사시기와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 매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한 빈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4월 초에 비해 4월 말 매장방문 빈도가 '늘었음'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했고 '줄었음'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감소함.
  - 채소·과채류는 4월 초에 비해 4월 말 '줄었음' 응답자의 비율이 -12.3%p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늘었음'은 11.3%p로 가장 많이 증가함.
  - 연령별 채소·과채류의 매장방문 구매 빈도의 경우, 40대에서 '줄었음' 응답자 비율이 -19.3%p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50대에서 '늘었음' 응답자 비율이 15.2%p로 가장 많이 증가함.

오프라인 매장방문 구매 빈도 변화 (3~4차)

단위 : %

구분	3차			4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과일·과채류	31.1	42.9	26.0	19.6	50.1	30.3
채소·과채류	29.6	48.0	22.4	17.3	49.0	33.7
육류	27.3	45.4	27.3	18.4	47.9	33.7
계란 및 유제품	19.2	44.0	36.8	13.2	44.2	42.6
채소(가공품)류	34.0	50.2	15.8	24.4	52.6	23.1
양념 채소류	28.9	51.1	20.0	17.1	55.8	27.0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연령에 따른 채소·과채류 오프라인 매장방문 구매 빈도 변화 (3~4차)

단위 : %

구분	3차			4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30대 이하	35.0	55.0	10.0	30.0	60.0	10.0
40대	35.4	38.8	25.9	16.1	51.0	32.9
50대	28.5	48.3	23.3	16.7	44.8	38.5
60대 이상	25.9	54.4	19.6	18.0	52.8	29.2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2.4 온라인 매장방문 빈도 변화

-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매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한 빈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과일·과채류 온라인 매장방문 구매 빈도의 '늘었음' 비율은 15.6%p 증가했으며, 조사대상 품목군 중 가장 많이 증가함.

- 연령별 과일·과채류 온라인 매장방문 구매 빈도에서 '늘었음' 비율의 경우 30대 이하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5.3%p 감소했고, 50대는 16.8%p로 가장 많이 증가함.
- 가족 수별 육류 온라인 매장방문 구매 빈도에서 '늘었음' 비율은 5명이 21.8%p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직업 분류별로 보면 서비스직이 34.1%p로 가장 많이 증가함.

온라인 매장방문 구매 빈도 변화 (1~2차)

단위 : %

구분	1차			2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과일·과채류	9.7	57.9	32.4	9.8	42.2	48.0
채소·과채류	10.7	62.2	27.2	10.2	54.6	35.2
육류	14.7	53.5	31.8	10.0	42.9	47.1
계란 및 유제품	8.4	56.3	35.3	7.1	47.8	45.0
채소(가공품)류	-	-	-	10.6	53.7	35.7
양념 채소류	-	-	-	10.9	53.0	36.1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주: 2월 1차 조사 당시 채소(가공품)류 및 양념 채소류 항목은 조사하지 않음

연령에 따른 과일·과채류 온라인 매장방문 구매 빈도 변화 (1~2차)

단위 : %

구분	1차			2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30대 이하	15.8	26.3	57.9	15.8	31.6	52.6
40대	1.8	58.2	40.0	7.6	35.1	57.3
50대	15.1	56.4	28.5	11.1	43.8	45.2
60대 이상	7.8	65.7	26.5	9.2	47.9	42.9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유형별 육류 온라인 매장방문 구매 빈도 변화 (1~2차)

단위 : %

구분		1차			2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가족 수	2명 이하	15.9	54.5	29.5	15.4	48.1	36.5
	3명	16.2	51.4	32.4	7.6	47.5	44.9
	4명	15.2	51.0	33.8	9.9	39.3	50.8
	5명	10.5	65.8	23.7	9.1	45.5	45.5
	6명 이상	0.0	77.8	22.2	22.2	44.4	33.3
직업	관리/전문직	6.1	51.5	42.4	7.1	40.5	52.4
	교육직	25.0	50.0	25.0	33.3	16.7	50.0
	사무직	13.3	62.7	24.0	10.0	47.5	42.5
	서비스직	23.5	70.6	5.9	0.0	60.0	40.0
	시간 근로제	16.7	55.6	27.8	3.8	53.8	42.3
	자영업	23.8	52.4	23.8	19.0	47.6	33.3
	주부	13.8	49.3	36.9	10.0	39.8	50.2
	판매직	28.6	57.1	14.3	33.3	22.2	44.4
	기타	20.0	40.0	40.0	0.0	66.7	33.3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 이전 차수 조사시기와 비교했을 때, 온라인 매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빈도의 증가 추세가 조금 완화됨.
  - 4월 초 대비 4월 말에서 '늘었음' 응답자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과일·과채류의 비율이 -8.5%p로 가장 많이 감소함.
  - 가구소득 구간별로 과일·과채류 온라인 매장 구매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구간은 '늘었음'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200~300만 원 미만 응답자는 3.8%p 증가함.
  - 직업별 과일·과채류 온라인 매장 구매 빈도 중 다른 범주는 '늘었음'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직과 시간 근로제의 응답자는 각각 4.7%p, 12.0%p 증가함.
  - 3차 조사와 4차 조사의 '줄었음' 응답자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

온라인 매장방문 구매 빈도 변화 (3~4차)

단위 : %

구분	3차			4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과일·과채류	10.6	44.0	45.4	10.1	53.0	36.9
채소·과채류	10.0	55.9	34.1	10.9	58.1	31.0
육류	8.6	45.0	46.4	9.9	47.2	43.0
계란 및 유제품	6.9	49.6	43.5	8.4	52.2	39.4
채소(가공품)류	12.2	54.6	33.2	12.3	61.1	26.6
양념 채소류	10.7	56.6	32.6	12.3	62.3	25.5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유형별 과일·과채류 온라인 매장방문 구매 빈도 변화 (3~4차)

단위 : %

구분		3차			4차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소득	200만 원 미만	16.0	48.0	36.0	20.0	60.0	20.0
	200~300만 원 미만	20.3	44.9	34.8	8.8	52.6	38.6
	300~400만 원 미만	10.8	50.8	38.3	9.1	55.5	35.5
	400~500만 원 미만	9.2	43.0	47.9	10.9	51.1	38.0
	500~600만 원 미만	5.1	37.4	57.6	9.5	50.5	40.0
	600만 원 이상	8.9	41.1	50.0	8.0	54.0	38.0
직업	관리/전문직	4.5	52.3	43.2	7.5	60.0	32.5
	교육직	0.0	40.0	60.0	0.0	60.0	40.0
	사무직	12.0	39.1	48.9	11.8	47.4	40.8
	서비스직	19.0	52.4	28.6	6.7	60.0	33.3
	시간 근로제	24.0	48.0	28.0	12.0	48.0	40.0
	자영업	12.5	62.5	25.0	5.0	75.0	20.0
	주부	9.5	42.1	48.4	10.7	50.7	38.5
	판매직	11.1	33.3	55.6	0.0	62.5	37.5
	기타	0.0	75.0	25.0	22.2	66.7	11.1

자료: 코로나 19 영향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조사

3. 요약 및 시사점

- 농업관측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행태 변화 조사를 총 4회 실시했으며, 1~2차 조사는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소비행태 변화를 조사하고, 3~4차 조사는 이전 차수 조사시기와 비교하여 소비행태 변화를 조사함.

- 코로나의 확산 영향으로 매장방문, 외식의 빈도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점차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고, 가정조리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 시 매장방문, 외식의 빈도는 감소하고 가정조리의 비율이 증가함.
  - 4월 초와 말 이전 차수 조사시기와 비교 시 음식점·매장 방문 빈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며, 가정조리의 상승세가 더뎌지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 시기에 축산물 외식 빈도는 대체로 감소 추세지만 최근 감소세가 약해지고 있음.
  - 감소세 전환 초기에서도 '줄었음' 응답자가 '늘었음'보다 더 많이 증가했지만, 4월 이후 '비슷함'으로 돌아서고 있음.

- 오프라인 매장방문 빈도는 확산 초기에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코로나 19 대규모 확산 초기에는 '줄었음' 응답자가 많았으나 확진자 감소세 전환 후 계란 및 유제품의 비율은 '늘었음' 응답자가 더 많아졌음.
  - 4월 이후 오프라인 매장방문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채소·과채류의 오프라인 소비가 증가함.

- 온라인 매장방문 빈도는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4월 이후 증가 추이가 완화됨.
  -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모든 품목의 온라인 매장방문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과일·과채류가 가장 많이 증가함.
  - 4월 이후 '늘었음' 응답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과일·과채류의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함.

E 01-2020-01

농업·농촌경제동향 2020 봄호 | 제23권 제1호 (통권87호)

등 록
인 쇄 2020. 5
발 행 2020. 5
발행인 김홍상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전 화 061-820-2126 팩스 061-820-2409 http://www.krei.re.kr
인쇄소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